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26일)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조계사 안팎에 울린 다른 목소리 8월 26일 조계사 안팎에서는 다른 목소리와 구호의 대규모 법회들이 열렸다.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계종 집행부를 비롯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사부대중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왼쪽 사진)를 봉행했다. 조계사 밖에서는 사부대중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국민대참회와 종단 개혁을 위한 전국승려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쪽은 '교권수호'를, 다른 한쪽은 '적폐청산'을 외쳤다. 종단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시작된 조계종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면〉 특별취재팀= 신성민, 노덕현, 윤호섭 기자**

하마평만 무성… 유력인물 '오리무중'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선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면 스님


지원 스님


보선 스님


원행 스님

후보등록 앞서 후보군 압축
일면 · 지원 · 보선 · 원행 스님
합종연횡 가능성 배제 못해

불교광장도 후보 추천 '조심'
범계의혹 전임자 사퇴 따라
선거에서 도덕성 영향 클 듯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로 수장 궐위상태에 빠진 조계종이 차기 총무원장선거 초읽기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선거일이 9월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곳곳에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교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차기총무원장 후보는 원로의원 일면 스님,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대략 4명으로 압축된다. 물론 후보자 등록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가능성이 높아져 변수를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스님들은 종단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기 총무원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무원장선거 2주 뒤에 제17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열리는 데다 중앙종회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 또한 올해는 직접적인 후보 추천을 지양하는 분위기여서 유력인물로 꼽히는 인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원로의원 일면 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나눔 전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봉선사 주지 등 종단 내외 주요 소임을 거쳤다. 특히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맡아 군포교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특히 일면 스님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서 생명나눔운동을 이끌고 있다. 2000년 간 이식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은 스님은 여생을 생명나눔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 역군(役軍)으로 불린다. 스님은 196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제9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장, 칠장사 · 법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원 스님은 40여 년간 포교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 청소년법회 개설을 비롯해 합창단 순회공연, 건강 템플스테이 등 시대를 앞선 포교방편을 기획했다. 또한 미얀마 청소년들을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기증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 한인청소년과 외국인 2세를 위한 '재외교포 한민족 전통문화체험 수련회' 등 해외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수행력과 종단운영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스님은 1966년 용암사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암사 · 봉암사 · 송광사 · 마곡사 · 백담사 무문관 · 대흥사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40안거 이상 성만한 수행자로 꼽힌다. 또한 총무원 호법부장과 대흥사 주지, 제14~15대 중앙종회의장,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로의원을 맡고 있다.

보선 스님은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자승 스님과 경쟁하면서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도덕성'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현재 종단 요직을 수행하고 있어 행정에 가장 밝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장,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금산사 주지, 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나눔의집 원장과 국제평화인권센터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경력이 풍부하다.

한편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범계의혹으로 인한 전임자의 사퇴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지도자급 스님들의 추문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개혁운동 등으로 극한의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덕장의 면모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김 지 원 수습해제
2018년 8월 27일 부
이상 1명

DMZ서 '명상' 평화축전 열린다

참선지도자協, 10월 13일 세계평화명상대전

분단의 상징 DMZ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평화명상대전이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는 8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은 세계 4대 명상스승으로 꼽히는 태국 아잔 간하, 영국 아잔 브람, 한국 혜국 스님, 대만 심도 선사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명상행사다. 참가인원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계평화명상대전에 참가하는 아잔 간하는 숲 속에서 홀로 수행시 수백 마리의 뱀을 조용히 고개 숙이게 만든 일화가 전해지는 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다. 아잔 브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100인 중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심도 선사는 대만 세계통합불교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한국불교를 대표해서는 간화선 대종장인 혜국 스님이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명상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명상선도자 각산 스님의 참선수행 및 명상지도도 마련된다.

각산 스님은 대회에 참석한 이들을 DMZ걷기명상을 비롯해 무차토론, 즉문즉설 담마토크 등 명상의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세계명상대전 대회장인 각산 스님은 "이번 행사는 명망 높은 세계적 선승들의 수행지도를 통해 현대인들의 지친 영혼과 아픔을 치유 하는 불교명상의 참선의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DMZ세계평화명상대전 참가비는 무료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또 신청자 선착순 5,000명에 한해 금동 부처님 기념 펜던트가 제공되며 참가자 편의를 위해 경의선 문산역부터 행사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이번 세계평화명상대전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의 '세계명상힐링캠프'와도 연계해 집중적인 명상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명상힐링캠프는 DMZ걷기명상 후 하이원 리조트에서 3박4일간 별도로 신청한 700명의 수행자들이 참가한다.

(02)451-0203 **노덕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혜국 스님, 아잔 브람, 각산 스님, 아잔 간하, 심도 선사.



교권수호vs적폐청산… 구호로 나뉜 조계종

8월 26일 조계사 안팎서 서로 다른 대규모법회

"종정교시 봉대" 주류세력과
직선제 · 보조비 주장한 야권
화합 없이 제 목소리 주장만

경찰벽 사이 두고 양측 대치
큰 충돌 없었지만 화합 난망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사퇴 이후에도 조계종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두 세력으로 나뉘어 한쪽은 '교권수호'를, 다른 한쪽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 수백여 명의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안과 밖은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행부 "참회 · 종단안정 최우선"

먼저 조계종 집행부를 비롯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주요인사들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밖에서 진행되는 전국승려대회 맞불법회 성격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중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등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참회와 성찰을 다짐하고,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린 교시를 받들어 종단 안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국민과 종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또 소임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길러왔는지, 정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뼈를 깎는 자세로 조고각하할 것이다. 그 다짐을 이 자리서 엄숙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과 각화선원장 노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각각 연설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 △MBC 시청 거부 △종헌종법 등 교권수호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한국불교가 오늘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반드시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면서 "종단은 하루속히 안정과 화합의 제자리를 찾아 사회와 국민의 모든 일상의 걱정을 거두고, 희망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승려대회 '한국불교 개혁' 선언

반면 조계사 맞은편에서는 국민대참회와 종단 개혁을 위한 전국승려결의대회가 봉행됐다. 당초 '전국승려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결의대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그간 주장해오던 승려대회의 '초법적 권한'도 잠시 뒤로 미뤘다.

승려결의대회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 조계종을걱정하는스님들의모임 상임대표 원인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200여 스님과 재가 사부대중 3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월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개혁을 선언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정신을 훼손하고, 신심 있는 불자를 욕되게 하는 등 무간지옥의 업보를 연출하고 있다"며 "철부지 아이가 흘트려 놓은 것을 치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함은 오늘날 촛불혁명 시대에 유신과 식민의 망령"이라며 "발심과 원력으로 이 결의대회에서 '한국불교 개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가 대중은 제도 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상에 오른 퇴휴 스님의 결의문 동의에 참가자들은 '동의'로써 화답했다.

이를 통해 대중은 △총무원장 직선제 △비구니 스님들에게 평등한 참종권 부여 △승가복지 완전 실현 △은처 · 비리 승 퇴출 △법사제도 활성화 및 승가 개편 △중앙종회 해산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 같은 종단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종단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진할 것도 다짐했다.

종단 갈등 장기화 전망

이처럼 같은 날 조계종이 둘로 나뉘어 서로 반대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종단 갈등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승려결의대회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초법적 권한을 갖는 '전국승려대회'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결의대회를 통해 종단개혁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측은 이를 일부세력의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종단 화합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종회는 오는 9월 6일 임시회를 소집해 종단을 비방하는 세력에 대처하는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찰 유휴지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조계종—㈜한국동서발전 '재생에너지 생산' MOU

조계종이 국가 주요정책이자 사회의 제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일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종단 소속사찰 유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사회적 공익 기여에 나설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한국동서발전과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계종 소속 사찰이 보유한 유휴지에 대해 동서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태양광을 생산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과 동서발전은 올 초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이에 따라 조계종 사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사찰을 취합하는 등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동서발전은 부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계약체결 시 자본투자,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및 조달, 시공과 운용, 대민업무 등을 책임진다.

이 자리서 진우 스님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 나아가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갖춘 한국불교는 항상 환경보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에 따라 사찰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함께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할 때마다 종단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겠다. 조계종에서 큰 기회를 주신 만큼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임하겠다"며 "무엇보다 부처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화답했다.

협약 이후 조계종 사업부는 종단산하 사찰 주지스님과 기관장들에게 세부적인 검토요건을 안내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곳을 취합해 생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조계종 측에서 재무부장 유승 스님과 사업부장 승원 스님이, 동서발전 측에서 홍동표 재생에너지실장, 김진교 태양광사업부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공기업이다. 현재 430MW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히스클리프의 집착

집착(執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니 소설 〈폭풍의 언덕〉이 떠오릅니다. 에밀리 브론테(1818~1848)가 쓴 이 소설은 주인공 히스클리프의 사랑과 증오, 분노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광적인 집착은 자신과 이웃의 삶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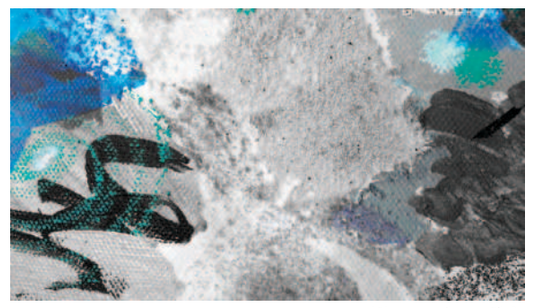
'워더링 하이츠(폭풍의 언덕)'라는 저택에 사는 언쇼는 어느 날 고아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죽은 큰아들의 이름 히스클리프를 소년의 이름으로 주고 아들 힌들리와 딸 캐서린과 함께 키웁니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괴롭히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힌들리의 학대는 더욱 심했습니다. 캐서린을 사랑한 히스클리프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캐서린이 대저택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자 그는 떠났습니다. 그 후 부자가 되어 돌아온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캐서린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딸을 낳고 죽습니다. 복수를 끝낸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옆에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해 유령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마침 올해가 에밀리 브론테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영국 문학걸작 10선으로 꼽히는 〈폭풍의 언덕〉을 소재로 집착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착은 얽매임이고 속박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대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집착은 무지가 마음을 뒤덮은 현상으로 갈애(목마름) 또는 욕망이라고도 합니다.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을 향한 사랑은 목마름 갈애였으며 자기를 얽어맨 속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그는 분노하고 복수합니다.

집착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집입니다. 아집에 사로잡히면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이며 병이 생깁니다. '나'라는 아집병을 고치려면 '나'라는 것이 빠진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의 집착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원행입니다.


집착 그림 · 조향숙

집착은 속박 · 苦의 원인
가장나쁜 집착은 '아집'
무아 · 보시행이 무착의 길

*아집을 버리되 그 가르침과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이 법집(法執)입니다. 집착을 없애겠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릴 때 법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지 보살도 법상이 일어나면 지옥입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존경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독립적인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아이므로 관계 속의 나만 있습니다.

나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나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생색을 내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비움을 방해합니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반야 지혜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번뇌 즉 보리'라고 했습니다. 집착의 에너지를 통찰지의 에너지로 바꾸면 보리가 나옵니다. 욕망 에너지를 무탐 · 무착 에너지로 잘 쓰면 미래가 열립니다. 불교는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상 · 무아의 가르침과 8정도 · 6바라밀 수행으로 마음을 바꿀 때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합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禪·관광 접목해 제주를 마음산업 성지로”

제주 원명선원 8월 25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해 ‘눈길’
트래킹 등 연계 필요성 주장
세계마음연구소 설립 제안도
“제주를 무진 행복의 땅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원명선원은 8월 25일 ‘21세기 세계 마음산업 현황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8월 25일 제주 건입동 김만덕기념관 강당에서 ‘21세기 세계 마음산업 현황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 전통 참선 수행체험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비드 A. 메이슨(David A. Mason) 세종대 교수가 ‘북미 마음산업과 한국 마음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권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산업으로서의 마음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마음산업 발전 제안을 내놨다.

메이슨 교수는 한국 백두대간과 그 안에 있는 산사들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백두대간 남반부 하이킹 코스 5㎞이내에 100여 개가 넘는 종교 유적이 있고, 이들 사찰 중 일부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순례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메이슨 교수는 △사찰 명상 안거프로그램을 하이킹·트레킹과 연계 △서구 명상센터 경영 벤치마킹 △영적 체험·순례로서 명상 안거프로그램 홍보 △‘한국적’ 콘텐츠를 포함 등을 제안했다.

메이슨 교수는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홍보와 불교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확인받아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마음산업 현황과 관광 정책의 방향’을 발표한 고상현 박사(동국대)는 한국·제주의 마음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 마음산업 발전 방안을 관광정책의 입장에서 제안했다.

고 박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참선 명상과 관련된 단체는 △(재)참선재단 △남국선원 △(사)백제힐링센터 △(사)해공명상센터 △(사)제주국제명상센터 △제주힐링센터 △제주선(仙)문화진흥원 등 7곳이다.

고 박사는 “제주에서 마음산업과 관련된 곳이 적지 않고, 외국의 수행처에 비해 자연환경이 뛰어나 더 발전된 수행센터와 마음산업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마음산업은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문제라는 게 고 박사의 지적이다. 고 박사는 “마음산업은 정부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33곳을 제외하고는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한 관광자원이지만 관광정책의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음산업의 활성화는 기존 관광산업의 분류와 범주, 개념을 확장시켜야 가능할 것”이라며 “사찰 등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광정책적 지원과 통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박사는 민관거버넌스 형식의 선원인 세계마음센터(가칭)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세계마음연구소(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전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모토 아래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일화로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제주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장옥령 대만 국제불교연합 주석이 ‘4차 산업으로서의 제주 관광 : 선 수행의 경제 산업과의 연결’을, 임근동 한국외대 교수가 ‘인도의 요가와 명상산업’ 주제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법당 도와 파면 부당”

신학大 교수 1심 ‘파면 취소’



훼불행위를 저지른 개신교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사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법당 내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SNS상에서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복구 모연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의 행동이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2월 파면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호섭 기자**

종교로 찾아보는 내 이상형은?

소셜 데이팅 앱 ‘매치코리아’ 시범운영
가연, “종교계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 일환”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신뢰도를 높인 무료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연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체결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협약의 일환으로, 소셜 데이팅 앱 ‘매치코리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매치코리아는 미혼 성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결혼정보회사의 신원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입과정서 허위 프로필을 방지하고 있다. 이후 출석체크, 데이트 평가 등 앱 활동으로 적립된 캔디를 이용해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소셜데이팅 앱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연은 관련 문제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기술을 접목한 기능들을 앱에 적용했다.

먼저 상대 이성에 대한 신뢰도와 데이트 관련 안전도 등을 높였다. 인터넷은행이 사용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해 학력, 결혼이력, 직장 등을 공문서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데이트 장소로 이동할 때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트 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신고가 가능한 ‘엔젤세이퍼’ 기능,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칭 서비스도 있다. 매치코리아는 같은 종교를 가진 이성을 우선 추천하는 ‘종교매칭’을 비롯해 ‘추천매칭’ ‘주제별 이상형 찾기’ ‘근거리 매칭’ 등 앱 기능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찾도록 돕는다.

가연 관계자는 “앱을 통해 진지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애 활성화와 혼인 성사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싱가포르서도 ‘대박’ 난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서 ‘성황’ 이뤄



나타스 홀리데이에 참여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높여가는 가운데 싱가포르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서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지난 8월 17~19일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인 ‘2018 나타스 홀리데이(NATAS Holidays 2018)에서 템플스테이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나타스 홀리데이는 약 12만 명이 참가하는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로, 현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여행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참여와 여행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참가자와 여행관계자들을 1대1 상담을 실시했다. 아울러 부채 만들기, 컵받침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4000여 명의 참가자가 부스를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템플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키엣(Kiat)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사찰은 산속에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고, 숙박과 체험도 가능해 매력적이다. 한국에 가게 되면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싱가포르 사원과는 다른 한국사찰과 템플스테이에 흥미를 보였으며, 단체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여행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지자체와 함께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인 템플스테이를 소개하고, 대상별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베트남전 희생자 추모제

베트남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9000여 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치러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9월 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문화공연장서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양민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한다. 이날 베트남 불교협회 의식부 부회장 틱 푸옥 치(Thich Phuoc Tri) 스님을 비롯, 사노위 소속 스님들과 주한 베트남 다문화가족, 유학생,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의 추모사, 틱 푸옥 치 스님 법문, 추모의식 및 회심곡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사노위는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을 향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고인들의 영혼을 위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제주 4.3 희생자 기도회 및 추모제 등을 봉행해온 사노위는 이번 추모제에 이어 2019년 베트남 현지서 추모 및 위령제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306) 정가 1,800원 →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잠든 텀블러 깨운 '환경보살' 306명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캠페인에 동참한 뒤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민지 씨는 점심시간 서울 조계사 앞을 지나던 중 직장동료와 함께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에 동참했다. 홍 씨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캠페인 참여 이후 자연스럽게 삶 속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7 · 8월 집중 시행기간을 둔 텀블러 캠페인은 8월 29일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와 북인사동마당 일원서 주 1회 7번에 걸쳐 텀블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기증받은 텀블러 300여개는 서울 봉은사 · 조계사 등을 통해 모았다. 그 중 중고품은 재세척 및 폐기 작업을 거쳐 동참자들에게 전해졌다.

본지는 7월 23일 불교환경연대와 '환경실천 캠페인 협약'을 체결, 1차 텀블러 · 2차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연말까지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캠페인 일환으로 본지도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환경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사 11건(사설 2 · 캠페인 관련 기사 5 · 불교와 환경 연재 4)을 두 달여 간 게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집에 두고 쓰지 않는 텀블러를 활용하자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에게 현실적 실천거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고양 금륜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등 지속적으로 텀블러 캠페인을 자체 진행하겠다는 곳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운동은 4대강 사업, 흑산공항 건설 등 정부지자체 측 결정을 막는 과정서 일반시민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상 속 습관을 손쉽게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시민들 자발적 참여 이끌어내 실천적 환경운동 확산 위해 사찰 산하 카페 등 동참해야

강조하는 실천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텀블러 챙기는 작은 습관이 지구를 살린다'는 구호는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본지의 오랜 독자인 텀블러 기증자 성민선 씨는 "관련 기사를 접한 뒤 주변에 남는 텀블러를 모으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친구끼리 마음을 나누듯 환경을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이라 그런지 텀블러 23개가 금방 모였다"고 말했다.

출근 시 텀블러를 챙겨가거나, 일회용 대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게 됐다는 등 동참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있었다. 텀블러 수령자 각산 스님은 "전부터 일회용품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텀블러를 받고 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환경을 생각하게 됐다"며 "무심코 쓰고 버리던 종이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찰에 머그컵과 텀블러를 비치하고, 깨끗하게 사용한 종이컵은 소형 화분으로 활용 중이다"고 말했다.

실천적 환경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대형 사찰 및 산하 찻집 · 카페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조계종 전법회관 1층에 있는 카페 '행복바라밀', 조계사 내 나무카페 등 사찰이 운영하는 카페 대부분은 여전히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불자들에게 기증받은 텀블러를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빌려주는 '텀블러보증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환경실천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텀블러 캠페인 관련 실무적인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텀블러 기증 및 주 1회 나눔 행사를 골자로 하는 텀블러 캠페인 제안서를 전국 400여 개 사찰에 배포한 상태로, 9월 30일까지 동참 접수를 받고 있다. (02)720-1654

또한 9월부터는 △장바구니 사용 독려 △우산비닐 안 쓰기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텀블러에 이어 2차 캠페인인 장바구니 캠페인은 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동참자들의 관련 수기를 받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7월 9일부터 진행된 텀블러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동참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약 후 피켓을 든 모습.

불교계, 자살예방의 날에 생명살림법회

9월 8~10일, 자살예방의날 22개 사찰서 법회

불교계가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전국에서 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9월 8~10일 전국 22개 사찰에서 '2018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으로 진행되는 생명살림대법회는 9월 8일 김제 금산사를 시작으로 9월 9일 서울 조계사와 길상사, 대원정사, 군포 정각사, 부산 범어사, 전주 전북불교대학,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담양 용흥사, 당진 성당사에서, 9월 10일 서울 봉은사, 화계사, 국제선센터, 문수사, 서산 서광사, 광주 증심사, 동원사, 가평 태은사, 송추 석굴암, 천안 각원사, 제천 심복사, 심흔사 등지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충남에서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우울증 진단 및 치매 검사와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향후 주요거점 확보 및 자살예방 활동가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 부산 범어사를 비롯해 광주 자비신행회에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수덕사, 서산 광해사, 평창 월정사 등을 불교자살예방 협력사찰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불교 사상에 근간해 생명 존중 정신을 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살 유가족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밀요양병원, 복지법인 인덕원 품에

8월 1일 호스피스센터 등 병원환경 재조성

조계종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 삼천사 회주)은 8월 1일자로 의료법인 '연꽃마을 파라밀요양병원'을 인수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요양병원은 2008년 7월 개원한 불교계 대표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대지 33,905㎡에 병원면적 8,492㎡로 지하1층, 지상6층에 총 198병상의 양 · 한방 전문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진료실, 한방과, 원무과, 매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2~6층은 입원실과 인공신장실(신장투석), 집중관리실, 운동치료실, 약국, 식당, 휴게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인수 후 현재 선진화된 치료 시스템도입과 자연친화적인 병원 위해 병원 환경을 재조성을 하고 있다.

특히 파라밀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 암 병동 의료센터'를 조성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환자가 여생 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 병원에서 받아오던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등 표준 요법과 병행해 암 환우들을 위한 식이요법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톤치드 섭취가 가능한 편백나무 숲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병원 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화의료 전담 의사와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등 사회복지법인 삼천사 · 인덕원 22개 산하시설 기관과 연계한 국내 최상의 '파라밀 ONE-STOP 토털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운 스님은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불교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보살행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GFCA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풍수지리를 체계화한 최고위과정이 개설됐다. 동국대는 최근 'GFCA풍수리지 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 지도교수는 소재학 박사로 최명우, 정경연, 노승우, 세준, 최병용 등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배치됐다.

소재학 박사는 미래예측학 박사 1호로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풍수지리는 이론보다는 활용만이 발달해왔다. 'GFCA풍수리지 최고위과정'은 기본개념과 원리부터 자연과학으로 정립된 이론체계를 공부할 수 있다.

첫 강좌는 9월 10일 오후 6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공개강좌 형식으로 열리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수업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1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나란다축제 초등부 행사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가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맞춰 답을 적고, 정답판을 번쩍 들어올린 모습.



나란다축제는 군장병을 넘어 사관생도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됐다. 사진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불교교리경시대회서 문제를 푸는 사관생도들.

청소년 신행증장 밑거름… '교계 대표 문화축제'

올해 10회째 맞은 나란다축제가 걸어온 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09년 불교교리경시대회서
2012년 나란다축제로 확대
매년 1만여 참가자로 '성황'

청소년뿐만 아닌 일반부 등
세대 아우르는 축제로 거듭

장학금 수여 등 인재불사와
불법홍포에 톡톡한 역할해

국내 유일의 불교교학대회이자 청소년 문화축제인 '나란다축제'가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2009년 9월 제1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시작된 나란다축제는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경시대회뿐만 아니라 장학퀴즈, 전통문화체험, 우리말 경전 독송대회, 댄스경연대회 등을 포함하며 외연을 확장, 청소년을 위한 신행증장과 포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10회 나란다축제가 오는 9월 8~9일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와 전국 군법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란다축제의 1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매년 변화되는 축제

나란다축제는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불교문화 대중화 원력을 세워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로 꼽힌다. 첫 대회는 2009년 9월 불교계 최초 전국 규모의 '제1회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로 문을 열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고,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당시 서울을 비롯해 평택,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에서 경시대회가 열렸으며, 초·중·고등부에 총 2641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듬해에는 KBS 간판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을 본떠 만든 '도전! 범종을 울려라'를 선보였다. 초등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불교교리를 접하도록 돕고자 만든 이 프로그램에는 예선에만 3100여 명이 몰렸다. 또한 군장병들을 위한 경시대회도 별도로 마련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청년장병들을 배려했다. 2011년에는 찬불가 경연대회와 UCC 경연대회, 불교문화한마당 등 교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무대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2012년 기존의 불교교리경시대회 명칭을 '나란다축제'로 변경, 행사를 확대·개편했다. 초등부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일반부를 신설하고, 드림콘서트 등 문화체험마당을 신설했다. 여기에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주최로 나서 힘을 실었으며, 청소년 역사관 정립을 위한 '독도사진전'을 기획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해에만 초등학생 4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8867명이 참가했다.

나란다축제 변천사

2009. 제1회 불교교리 경시대회
2010. '도전! 범종을 울려라' 도입
2011. 찬불가·UCC경연대회 선봬
2012. '나란다축제'로 확대·개편
2013. 사관생도 경시대회 신설
2014.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개최
2015.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신설
2016. '우리말 독송대회' 첫 선
2017. 각종 행사 인터넷 생중계
2018. 학교·사찰·군부대 장학퀴즈

이후 외국인들을 위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신설을 비롯해 사관생도들이 참여하는 '불교교리경시대회' 등을 마련하면서 1만여 명에 육박하는 참가자를 매년 기록했다. 제7회 대회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에 동참하기 위해 부문별 참가자 1인이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0원의 기부금을 적립했다. 또한 경시대회와 댄스대회 참가자는 응시만으로도 100원이 자동 적립되도록 했다. 이는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제8회 대회부터는 'Be the Buddha'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된다는 뜻과 부처님 만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를 담았다. 청소년들의 신행증장을 돕고, 한글경전 보급을 위해 '우리말 독송대회'를 신설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우리말 독송대회, 나란다 K-경연대회를 인터넷 생중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나란다축제는 불교교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각종 공연도 지원한다.



우리말 독송대회에서 합장한 채 한글 예불문을 독송하는 학생들.

무엇보다 나란다축제는 부문별 수상자들을 위한 폭 넓은 장학금을 마련, 지난해까지 총 81개 단체와 3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나란다축제 장학금은 불교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불교계에 미래불교를 책임질 동량을 키워낸 행사로 평가된다.

"본사단위 지역행사 기대"

이처럼 나란다축제는 매년 참가자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지루하지 않은 행사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덕분에 제1회 대회 고등부 대상수상자는 현재 동국대에서 불교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제2회 대회 수상자는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걷는 등 출가진흥과 불법홍포에 공헌했다.

하지만 매년 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나란다축제를 주최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진 않지만 나란다축제가 보다 전국적인 행사로, 불교계 전체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종단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나란다축제가 포교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이 같은 행사가 종단 전체의 포교 방향성으로 자리 잡고, 종단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기복적인 성향이 강했던 한국불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다가가 종교를 전한다면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고, 불교다운 불교로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종단적인 협조와 관련해 성효 스님은 교구본사들이 지역 봉축행사처럼 별도의 청소년 문화축제를 마련, 봄의 봉축에 이은 가을의 불교축제를 만드는 것을 제언했다.

성효 스님은 "부산 등 몇 지역에서는 이미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뜻이 전국적으로 함께 뭉친다면 포교를 향한 불교계의 광폭 행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 8~9일 열리는 제10회 나란다축제는 나란다 장학퀴즈를 신설, 학교·사찰·군부대를 대표한 참가자들이 각 단체의 명예를 걸고 지식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외에도 △불교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우리말 독송대회 △붓다야! 놀자 △K-댄스경연대회 △회향마당 △전통문화체험마당 등이 진행된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4〉 한경면 청수리 영축사

위풍당당한 사찰, 4·3광풍에 '잿더미'



부악사, 기원사를 거쳐 현재는 영축사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



고향이 한경면 낙천인 광수 스님. 4.3이 발발할 무렵 10살이었지만 당시 부악사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스님이 전소가 된 부악사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뒤로 영축사의 모습이 보인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청수리 가마봉은 남쪽의 큰 봉우리 등성이가 서북쪽으로 휘돌아 상봉, 중봉, 하봉이 'ㄷ' 자 모양의 가마를 닮았다하여 가마오름이라 붙여졌다. 이 형세가 가마(釜)와 같다는 데서 가메 오름 또는 가마 오름이라 부른다. 그 가마봉 상봉 북녘 기슭에 자리했다하여 부악사(釜岳寺)라 불렸다.

부악사는 지난 1933년 갑술년에 김경호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당시 한경면에는 지난 1932년 제주불교 중흥조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고산 월성사가 창건됐고, 1934년 양경수 거사의 부지를 시주받아 김화표 스님이 1934년 판포 통천사를 창건하면서 이 지역에 불법 홍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중산간 지역인 저지와 청수의 불자들을 위한 불법 도량 '부악사'의 창건은 이 지역 불심이 무르익었다는 방증이다.

경호 스님에 이어 2대 주지로 월봉 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대교과를 수료 후 부악사에 감원으로 발령받는다. 통천사 김화표 스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4·3이 발발하기 이전이었다고 월봉 스님의 상좌였던 광수 스님은 부악사에 대해 기억해 냈다.

"청수 인근 낙천이 제 고향입니다. 당시 제가 10살 무렵이었는데 어머니를 따라 부악사에 동지기도를 따라갔어요. 당시 부악사 위세가 가히 당당했습니다. 사천왕상이 그려진 일주문에 요사채 그리고 대웅전이 초가집이 아닌 모두 기와였어요. 저지와 청수는 물론 월림·영락·무릉에서까지 신도들이 기도처로 삼았기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기도 때가 되면 요사채와 법당 안이 신도들로 가득했어요."

제주 중산간 지역 불법 홍포 중심이었던 부악사
기와전각 3채 전소… 목조여래좌상만 피신시켜
광수 스님 1960년대 중창하며 영축사로 명명해

그러나 제주 최대의 아픔 1948년 4·3사건이 발발했고, 그해 10월 20일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지점과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 금지를 포고하고 위반하는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한다' 고 포고령이 떨어진다.

그러자 부악사의 위세도 하루아침에 꺾이고 만다. 당시 월봉 스님의 친동생이 저지에 경찰로 근무할 무렵이었다. 동생은 하루 빨리 해안마을로 내려가야 한다고 알려줬고, 시급함을 알게 된 스님은 모셨던 부처님(목조여래좌상)을 등에 짊어지고 판포 통천사로 피신하기에 이른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스님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결국 토벌대에 의해 위풍당당했던 부악사는 불 질러졌고, 폐사하기에 이른다. 그 흔적은 옛 기와만이 흩어져 그 당시의 위용을 증명할 뿐이다.

부악사가 폐사됨에 따라 월봉 스님은 이곳 저곳 사찰의 기도 스님으로 있다가 모슬포 대승사 주지 비구니 스님이 입적하면서 대승사에 주지로 주석하게 된다. 그 무렵 광수 스님은 이름 모를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월봉 스님은 침과 탕약에 능했는데 광수 스님의 모친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낙천에 월봉 스님을 모시게 된다. 3주 동안 매일같이 침과 탕약을 끓여 결국 기적적으로 광수 스님은 새 생명을 얻는다. 그 후 광수 스님의 어머니 제안으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부처님을 봉안하자는 데 마을 유지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1954년 낙천에 '기원사'가 창건된다. 기원사에는 4·3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통천사에 모셨던 불상을 다시 기원사로 이운해 봉안하며 이 지역의 불법 홍포 도량으로 삼는다.

고향이 한경면 낙천리인 광수 스님. 4·3사건이 발발할 무렵 10살이었지만 당시 부악사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스님은 전소가 된 부악사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뒤로 영축사의 모습이 보였다.

"당시 한창 4·3재건으로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고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자신 집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불자들은 자기 집은 못 짓더라도 기원사를 짓는 데는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가면서 부악사를 중건해야 한다는 신도들의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당시 관음회가 조직되었고, 당시 전소된 부악사 부지는 150평으로 협소했는데 크게 중창을 염두하고 현 영축사 부지를 매입한다.

1961년 임인년 오두막을 지은 데 이어 1964년 을사년 초가 대웅전과 종각을 갖추고, 기원사의 불상을 다시 모셔오면서 여법한 옛 명성을 이으면서 다시금 불법이 피기 시작한다. 새롭게 불사를 중창한 만큼 부악사에서 사명을 개명, 영축사라 명명했다. 그 이유는 가마봉 인근에 큰 암석이 하나 있는데 그 인도 영축산에 있는 독수리 모습을 닮았다하여 '영축사'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영축사

토벌대가 마을과 사찰 불태워
불상만 겨우 가져와 다시 봉안

영축사는 한경면 청수리 1223번지에 있다. 지금의 영축사는 부악사의 뜻을 이어 새로운 부지에 자리 잡은 사찰이다.

제주 4·3으로 잃어버린 사찰, 부악사는 청수리 1205번지 가마오름 언덕에 있었다. 부악사는 원래의 자리로 복원되지 못하였다.

부악사는 1943년 대흥사청수포교당으로 신고되었고, 김경호 스님이 창건하였다. 제주4·3으로 사찰이 전소되었다.

제주4·3 당시에는 2대 주지 월봉 스님이 부악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소개령 직전 당시 월봉 스님의 속가 동생인 김태원 저지파출소장이 당장 내려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월봉 스님은 불상을 바랑에 지고 판포 통천사로 소개하였다. 그 후 법당과 요사채, 일주문 3동이 모두 토벌대에 소각되었다.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지경에 외따로 가마오름 언덕에 부악사는 있었다. 토벌대는 소개시키며 마을에 불을 지르는데 부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악사는 제자리로 재건되지 못하였고, 월봉 스님도 부악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슬포 대승사에 주석하기도 하였다. 부악사 옛터에는 지금도 기와파편이 많이 남아있다.

현 영축사의 광수 스님 모친이 월봉 스님과 함께 고향 낙천리에 기원사를 지은 적도 있고 현재 영축사 자리에 다시 법당을 지었다. 부악사의 불상은 지금 영축사 법당에 모시고 있다.

부악사를 창건한 김경호 스님은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 영락사 대표로 출석한 기록이 있다.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는 해방을 맞아 친일불교를 청산하고 전통불교의 수행 정신으로 불교를 재건하겠다는 대회였다. 제주도승려대회로 제주교무원이 설치되었고, 강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대중불교를 실현할 것, 육식 금지 및 화주 사찰 거주 금지 등으로 사찰을 정화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건국정신을 진작하고자 하는 노력도 의결하게 되는데 이는 해방으로 제주불교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자연과학 풍수지리(風水地理) 공개 특강

아직도 풍수를 모르시나요? 혹시 반풍수? 풍수도 논리로 풀 수 있을까?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주임교수
· 동국대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주임교수
·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주임교수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위원장

• 일시:9월 10일(월) 18:00 ~ 21:00 • 장소: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 동국대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개강 공개 특강
• 수업: 매주 목(木) 18:30~21:00 (1년 2학기 과정)

제대로 된 풍수지리는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며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연과학입니다.

100세 시대의 풍수지리는, 아직도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반풍수가 아닌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의 학문입니다.

비법, 비기 찾아 평생을 소비하며 수만금을 지불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정경연 박사, 노승우 박사, 세준 박사,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등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스승, 최고 교수진이 직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관상)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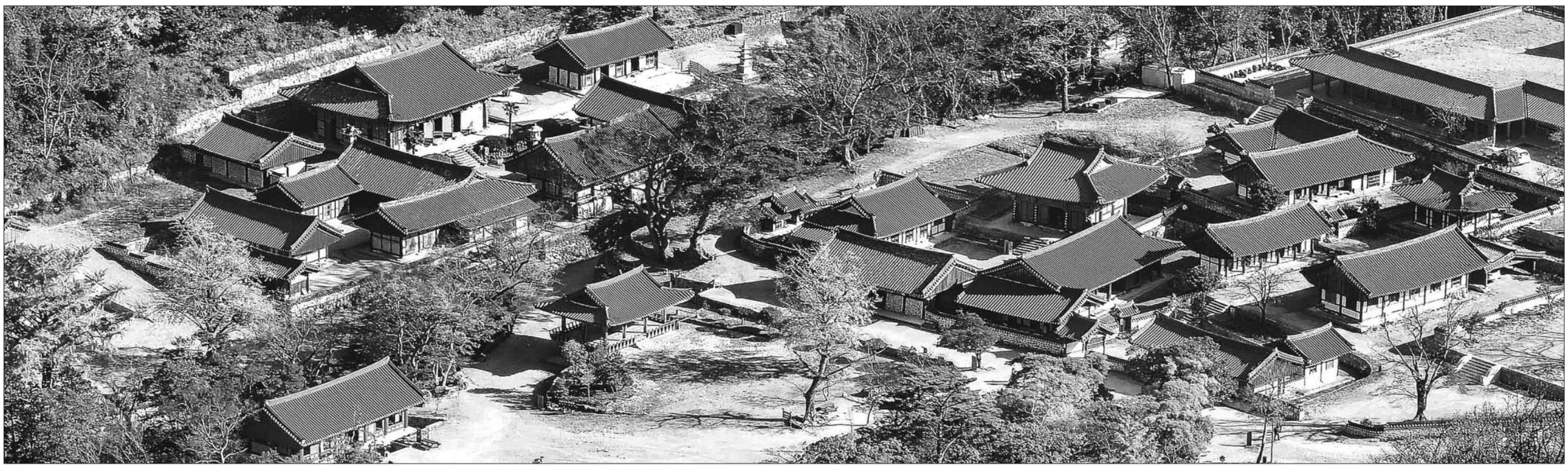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매주 목(木) 18:00~21:00

성공과 실패 시기 찾는 유일한 현대 사주학 마스터 과정, 마스터까지 무료 무한 반복

참가 신청 및 문의 동국대 GFCA 최고위과정 사무국 02-3443-4984 www.gfca.kr

현대불교 제 1211 호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체계적인 자연공원 관리가 불교환경 미래



두륜산 국립공원 내 대흥사. 전통사찰과 자연공원은 뗄 수 없는 관계다. 21세기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원관리 전문성을 키우는 불교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21세기 불교와 자연공원

지난 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제도는 어언 50년이 지나가고 있다.

작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 전면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원제도가 도입된지 50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자연공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21세기 바람직한 자연공원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장점

숲의 종교인 불교는 태생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종교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불교는 신라시대 이후 천수백년간 산중에 위치하여 산을 지켜왔다. 생전의 일타 스님께 들었던 말 중의 하나는 예전부터 스님들은 땔나무를 위해 나뭇가지 하나를 자를 때에도 반야심경을 읽고 베었다고 한다. 통도사의 경봉 스님께서는 60, 70년대 통도사의 소나무들을 벌목하려 하자 친히 노구를 이끌고 나오셔서 '송하구승(松下臞僧: 소나무아래 삐쩍 마른 스님이 잘 어울린다.)'이라 하시며, 막으셨다고 한다. 또한 사찰림의 벌목을 막기 위해 산을 지키는 산감(山監)을 두고 관리해오는 등 산의 주인으로서 산주정신(山主精神)을 가지고 사찰이 포함된 산과 숲을 지켜왔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많은 사찰림들이 양호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21세기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불교라는 종교유산은 기본적이고, 생태환경이 매우 양호한 사찰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자연유산은 정말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산자원이다. 또한 사찰림과 함께 국보, 보물 등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들도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기도 하다. 결국 사찰과 사찰림은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삼세(三世)의 복합유산(複合遺産)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어언 50년이 지난 장년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이 22개소, 도립공원이 29개소, 군립공원이 27개소이다. 총 면적 5222.9㎢ 중 국립공원은 3972.6㎢, 도립공원은 1012.6㎢, 군립공원은 237.8㎢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61.7%인 3220.9㎢이고, 사유지는 38.3%인 2002.0㎢이다. 사유지중에서도 사찰 소유토지는 우리나라 자연공원 전체 면적의 7.8%인 411.6㎢이고, 현재 공원 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 탐방로는 사찰로 가는 길이 포함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원관리의 수준과 관리의 전문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공원관리는 아직도 정부주도의 수직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외형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방치된 상황이다.

둘째는 외국의 자연공원의 대부분이 국 · 공유지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사유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공원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으며, 무엇보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자연생태 위주의 외국의 자연공원과는 달리 공원지역내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등이 많이 포함된 복합유산지역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공원 내에 대부분 전통사찰들이 포함되어있고, 사찰로 가는 길이 주요한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넷째는 공원관리시 자연공원의 특성을 무시한 개발행위 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공원관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무시하는

자연공원 정체성 정립 시급
공원관리 전문성 확보해야
사유권 보상방안도 강구 필요

정책결정들이 일어남으로써 공원지정의 목적과 상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21세기 자연공원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된 현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21세기적 관점에서 보완해 갈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연공원에 대한 개념 및 정체성 정립 문제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중 국립(國立), 도립(道立), 군립(郡立)이라는 용어는 공원면적의 전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때에는 타당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국립(國立)이라는 말 대신 국가공원(國家公園), 지방공원(地方公園)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립(國立)이라는 말 자체가 공원전체가 국공유지(國公有地)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사찰 등 복합유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공원 내 주요 유산자원인 문화환경(문화경관과 문화자원)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원지역내 보존 및 관리원칙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원관리의 전문성 확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생태위주의 공원관리체계에서 탈피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복합유산(複合遺産) 지역이라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각 공원별로 특성화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지정된 국립공원 22개소의 각 공원별 특수성을 고려한 공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몇몇의 자연생태가 우수한 공원을 제외하고는 전통사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생태 위주의 관리를 하는 카테고리 Ⅱ지역보다는 문화경관으로 관리하는 카테고리 Ⅴ로 지정하여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공원내 전통사찰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전통사찰가치평가를 수행하여야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보존지 전체로 지정하여 사찰의 종교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는 사유권 보장 및 보상방안에 대한 강구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포함된 사유지(私有地)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지에 대한 가치(價値) 또는 기여도평가(寄與度評價) 등을 실시하여 적당한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1세기 국가규모에 맞추어서 공원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토지는 매입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원지역이란 이유로 무작정 법적인 행위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21세기 국격(國格)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공원의 공동관리 확립이다. 선진국서는 공원 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공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원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공동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공원 내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공원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토지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공동관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바람직한 공원관리 필요해

자연공원제도 50년을 지나며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면서 21세기 바람직한 공원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21세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공원다운 공원관리를 위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50년을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은 불교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지난 50년처럼 푸대접을 받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또 다시 불교계의 자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한다.

비록 종단이 혼란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난 50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불교계가 산주정신(山主精神)을 가지고, 지난 1700년 동안 지켜온 산과 사찰림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본다.



이병인(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천년 고찰서 사라진 명품 佛畵들





(사진 왼쪽부터) 도난된 의성 고운사 아미타불회도1와 아미타불회도2, 지장시왕도.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⑯ 의성 고운사 도난 성보

의상대사 창건한 의성 대표 사찰
1970년대 이후 성보 도난 이어져
현재 아미타회불도 등 5점만 신고
문화재 전문털이범 소행으로 추정

경북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의성군은 안동, 상주, 구미, 예천과 접한 지역으로, 한국불교사에 중심 지역이라 사찰이나 사지(寺址)가 많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불가(佛家)의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강원(講院)과 율사(律師)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율원(律院)을 갖춘 대표적인 사찰로는 고운사를 들 수 있다. 고운사는 1913년 2월 사찰령(寺刹令)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本末寺法)이 시행된 후, 현재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경북 지역의 신행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운사의 창건과 연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는 1937년에 강유문이 편찬한 〈경북오본사고금기요(慶北五本山古今紀要)〉이다. 이 문헌에 의하면 고운사는 681년에 의상(義湘)이 창건하여 고운사(高雲寺)라 한 후, 최치원(崔致遠)이 여지(如智)·여사(如事)와 함께 가운루(駕雲樓)와 우화루(羽化樓)를 건립한 것을 기념하여 최치원의 자(字)를 따서 고운사(孤雲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도선(道詵)이 약사여래석불과 석탑을 안치하고, 948년에 운주(雲住)가 중창하였으며 1018년 천우(天祐)가 대웅전과 약사전 등을 중창하였다.

1482년에 석가불을 안동 갈라산(葛羅山) 낙타사(駱駝寺)에서 옮겨 대웅전에 봉안하고, 1668년에 극성(克成)과 승묵(勝默) 등이 가운루를 중수하였으며, 처순(處淳)이 천왕문(天王門)을, 설행(雪行)이 봉황문을 신축하였다. 1670년 숭해(崇海)와 묘선(妙善) 등이 명부전을 신축하고 시왕상(十王像)을 조성하였으며, 종헌(宗憲)과 설휘(雪輝)는 영각(影閣)을 짓고 스님의 진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다. 1681년에 천왕문을 중수하고, 1683년에 관헌(灌憲)과 인잠(印岑) 등이 팔상전(八相殿)을 신축하였다. 1695년에 도청(道淸)과 선조(禪照)가 극락전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상을 봉안하여 이전의 관음상과 함께 삼존불상을 구비하였다.

1724년에 법존(法存)과 지훈(智勳) 등이 운수암(雲水庵)을 창건하고, 1729년에 신유한(申維翰)이 사적비를 세웠다. 1803년 4월에 적묵당과 서별실이 화재로 불타 없어지자 1804년 2월 문찰(文察)이 중건하고, 1812년에 의암이 운수암을 중건하였다.

이후 대웅전과 금당을 중건한 후, 1906년에 경북 일부의 사찰에 대한 관리를 종무원(宗務院)에서 부여받고, 1912년에 30본산(本山)의 하나가 되었으며, 1913년 2월 사찰령(寺刹令)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本末寺法)이 시행되면서 교구본사로 많은 말사를 거느리게 된다.

고운사에 소장되었던 재산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본사에 소장된 성보물은 219건 1,085점이다. 이 중에 불상 37점, 불화 69점(아미타불 등 50점, 진영 19점)이나 되어 조선 후기 조성된 성보문화재가 20세기 전반까지 잘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사찰에 소장되어 있던 문화재들은 유출이나 도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사찰에서 도난문화재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조계종 총무원에 신고된 성보문화재(〈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2016년 간행)는 사십이수관음보살도(1989.01.13. 도난), 아미타불회도 2점(1994.10.04.과 1997.09.02. 도난), 지장보살도(1994.10.04. 도난), 신중도(1992.01.03. 도난)밖에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1932년 12월 23일)					비 고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아미타불	명주 족자	1	아미타불탱	6	명주	괘도		도난 2점
	면주 탱화	2						
	무명 탱화	3						
지장보살	〃	1	지장보살탱	4	〃	〃		도난 1점
	무명 탱화	3						
관음보살	명주 족자	1	관세음보살탱	1	〃	〃	세로 7척9촌 가로 7척1촌	도난 1점
신장	면주 탱화	1	신장탱	5	〃			도난 1점
	무명 탱화	4						
사천왕	삼베	4	사천왕탱	4	명주	괘도	세로 11척1촌 가로 6척5촌	광목천과 다문천 (홍익대박물관 소장)

1994년 10월에 도난된 아미타불회도와 지장보살도는 당일 연합뉴스에 "의성 고운사 탱화 2점 도난, (義城=聯合) 4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 사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고운사 내 극락전에 걸려있던 탱화 2점이 도난당했다고 고운사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주지 김주석 씨(50)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숙소에서 잠을 잔 뒤 3시께 아침 예불을 위해 극락전에 와 보니 벽에 걸려있던 탱화 2점이 없어졌다는 것. 도난된 탱화는 고려시대 때 제작된 세로2.4m 가로2.4m 크기 1점과 조선시대 때의 세로2.2m 가로2.8m 짜리 등 2점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고운사 측은 주장했다. 경찰은 문화재 전문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 기록을 참조해보면 도난 시점이 4일 새벽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을 통해 20세기 전반 고운사에 아미타불도는 6점, 지장보살도 4점, 관음보살도는 1점, 신장도는 5점이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찰에서 유출된 사천왕도 중에 광목천과 다문천은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내세에의 염원 … 한국의 불교미술〉 2013년). 기존 문화재청에 신고된 도난 불화의 규격은 관음도가 세로 210㎝ 가로 240㎝, 신장도는 세로 170㎝ 가로 100㎝이다.

1994년 10월 4일에 각각 도난당한 아미타불회도는 극락정토를 주재하는 부처님 아미타불을 중앙에 두고 그 좌우로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형식을 취했다. 원권형의 두광과 신광을 두르고 있는 아미타삼존불좌상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오른손을 가슴 위로 들어 올려서 엄지와 셋째손가락을 마주한 구품인(九品印)을 결하고 있는 아미타불 위쪽 좌우로 가섭과 아난존자를 배치하였다.

1997년 9월 2일에 잃어버린 아미타불회도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세계를 표현했는데, 대좌 위에 앉아있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역시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에 두고 제 보살들을 4명씩 2단으로 배열한 형식을 취하였다. 화면의 윗부분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하여 호법신의 역할을 하는 사천왕을 그려 넣었다.

지장보살도는 1994년 10월 4일에 아미타불회도와 같이 도난당한 불화로, 명부전의 주존인 지장보살상 후불도로 조성된 것이다. 역시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함께 협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를 바로 옆에 그리고 육도중생의 고뇌를 구원하는 용수보살 등 육대보살을 층층으로 단차를 두어 지장보살을 수호하며 애워싸듯이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화면의 맨 위에는 지장보살을 보좌하는 동자와 천녀 그리고 장군을 작은 크기로 대칭적으로 그려 넣었다. 지장보살상 후불도로 그려져 봉안된 지장보살도의 지장보살은 민머리 승형을 취하고 있으며, 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후기 불화 가운데 가장 특이한 사십이수관음보살도(1989.1.13. 도난)는 중생의 삶에 가장 친근하다고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을 그린 불화이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몸에 천수천안이 생겨나게 하라는 서원을 세워 천수천안(千手千眼)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천수천안관음신앙의 영향으로 그려진 불화이다. 42개의 손바닥에는 눈이 그려져 있고, 손에 금강저, 보주, 연꽃, 정병 등 각기 다른 지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고운사 관음도는 독특하게도 관세음보살을 중앙에 크게 그리고 가슴좌우로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을 배치하고 있다. 보관에는 화불이 물론 표현되어 있다.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매우 화려한 채색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2018 생명살림 대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맞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생명존중 · 자살예방을 위한 "2018 생명살림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요 법회 일정

일 자	NO.	사찰명	법 사
9월 1일(토)	1	목우선원(02-2236-5306)	인경스님
9월 9일(일), 일 요 법 회	1	금강선원(02-969-2410)	혜거스님
	2	종로 조계사(02-768-8600)	지운스님
	3	성북동 길상사(02-3672-5945)	원영스님
	4	용산 대원정사(02-754-1614)	주지 청운스님
	5	군포 정각사(031-398-8001)	유정길 법사
	6	남양주 봉인사(031-574-5585)	청원스님
	7	부산 범어사(051-508-3122)	법지스님
	8	전주 전북불교대학(063-226-7878)	효룩스님
	9	담양 용흥사(061-382-0574)	주지 덕유스님
	10	공주 마곡사(041-841-6221)	선업스님
	11	예산 수덕사(041-330-7700)	종문스님
	12	당진 성당사(041-357-3869)	주지 도윤스님
9월 10일(월), 초하루 법회	1	강남 봉은사(02-3218-4800)	주지 원명스님
	2	우이동 화계사(02-902-2663)	주지 수암스님
	3	목동 국제선센터(02-2650-2200)	원영스님
	4	종로 문수사(02-391-2062)	주지 태성스님
	5	남양주 봉인사(031-574-5585)	적경스님
	6	송추 석굴암(031-826-3573)	주지 도일스님
	7	평택 심복사(031-682-5588)	주지 성일스님
	8	광주 중심사(062-226-0108)	템플 지도법사 연덕스님
	9	광주 사자비신행회, 동원사(062-225-3516)	주지 지장스님
	10	서산 서광사(041-664-2002)	주지 도신스님
	11	천안 각원사(041-561-3545)	주지 대원스님
	12	제천 심흔사(043-642-9413)	주지 고산스님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불교상담개발원, 23개 사찰 및 단체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불교, 사회복지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⑯ 불교복지 미래



불교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불자와 이용자의 모습. 다양한 불교기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사회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가 맡으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은 다양한 민간사회복지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증대하면서 미흡한 공적 사회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종교계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구한말 개항 이후에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구호사업의 전개와 불교계의 복지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해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에 민간사회복지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 이에 물질주의와 인간소외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존중과 연기사상을 실천할 불교사회복지의 자리매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들에서 스님이 시설장 및 복지사로 종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불교신도의 비율도 타종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 종교 신도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스님과 불교신도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사업에서 불교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교적 소양이 높아야 불교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여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계는 시설종사자의 불교적 소양과 교리적 지식을 제고하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참여 확대 및 시설종사자의 불교적 소양 제고와 더불어 불교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찰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벗어나 직영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위탁 사회복지시설은 종교계가 운영권을 갖더라도 실천현장에서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거나 접목하는데 법적 · 현실적 제약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향후 여러 종단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위탁시설이 아닌 직영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잠시 언급하였지만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 서비스의 개발 · 보급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독자성에 확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는 불교적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적다. 불교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교적 정체성에 입각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는 불교사상과 가치관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여 불교계의 단위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불교계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함에 있어서는 이용자 측면과 운영자 측면의 문제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이용자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취할지를 예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시설이 '불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인식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환류(feed-back)하여야 하는 것이다.

운영자 측면에서는,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초기부터 운영자의 기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요컨대 불교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설계 시점부터 운영자들이 가지는 '불교적 기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볼 때, 불교적 상담이나 명상, 정신적 지지프로그램, 선체조 및 선무도와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종교 중립적이면서도 불교성이 배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불교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네트워크와 인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관련 시설과 인력들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불교종단들은 불교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만 하는데, 특히 '종단 중앙 사회복지재단', 즉 각 불교종단의 중앙 차원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에 그 의무가 주어져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단 중앙 사회복지재단의 사례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등이 있다.

시설 · 인력 네트워크 구축
인명사전 · 수첩 발간 고려
기업 후원 전담 기구 설치

이 종단 중앙 사회복지재단들은 사회복지 사업분야별, 즉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 노숙인 · 의료 · 상담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별로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계에서도 지역복지관연합회, 노인복지시설 연합회,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등 서비스 시설별로 시설장과 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 중앙 사회복지재단들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종단 중앙 사회복지재단들은 시설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인력들을 불교사회복지사단체, 불교사회복지시설장 협의회, 불교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 협의회 등으로 조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교사회복지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불교사회복지 인명사전과 인재수첩의 발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 네트워크와 인력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용을 지원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정보 네트워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복지네트워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내용을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니라 센터와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확보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불교사회복지의 자리매김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교사회복지조직은 타 종교 사회복지조직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활동을 늦게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원개발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상의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불교사회복지시설들은 개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개별 사회복지시설들의 재원 마련은 근본적으로 각각의 시설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종단적 후원이 뒤따른다면 불교사회복지의 자리매김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종단 차원의 후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기업 후원 및 고액 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더구나 여러 단체로부터 각종 후원 요청을 받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교종단 내지 사찰의 사회복지 후원 요청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종단 차원에서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CRM: Cause-Related-Marketing)을 수주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연계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목적에 기업 이윤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기업은 제품 판매 이익의 일부를 공익 목적에 지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선진 마케팅 전략이다. 미국에서 1983년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하기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American Express Card)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카드 사용 거래마다 1센트씩, 신규발행 카드 1장에 1달러씩 자유의 여신상 보수에 기부하여 170만 달러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으로 카드 사용의 28%, 카드 사용자 수가 17%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유한 킴벌리, 두산, 삼성전자, CJ 제일제당, LG홈쇼핑, 아시아나항공 등 여러 기업에서 CRM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불교사회복지 분야에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을 수주하게 된다면 불교계는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판매량 제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불교계가 CRM 등 사회복지 후원 전담기관을 종단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한다면, 재원개발을 위한 조직개편과 연구 및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중앙 차원에서 재원동원과 마케팅 관련 전문가의 영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불교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하 기관들의 자원개발 실태와 모금현황, 외부환경의 조사와 자원의 분석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체계적인 모금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산하 단체에 산재에 있는 모금 관련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하여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사회복지분야에 재원을 용이하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홍보는 후원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재와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다양하게 알림으로써 사회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 등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면서도, 잠재적 후원자들의 입장에서는 뉴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방송 · 언론사들과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불교계 방송사와 언론사를 적극 활용하여 자원확보와 관련한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현대인의 익명성을 극복시킨 '시테크' 최고 고등한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출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綜合 韓國品

'장중비결' 종합 중국본 '장중비결' 종합 일본판 **동시 발매**

본 육임모바일 앱 '장중비결'은 한국육임학회와 미국동양학대학교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가 협력해 '한국품', '중국본', '일본판'으로 동시 개발했다.

■ 만나는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으로만 상대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고등 '시테크'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완성품 출시!
'정확도' '간편성' '착목도' '효과성' 보장!

■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도, 전화통화를 해도, 문자를 받아도 그 순서대로 메뉴에 나타나 있는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모든 정황은 물론, 비밀사안까지 적시되어 있는 18년에 걸쳐 이룩해낸 IT한 쪽의 정수(精粹)!

■ **적용대상인** : 신규거래자, 계약상대자, 신규채용자, 동호회원 영입자, 이해관계자, 상하위계자, 혼담진행자, 매입의사자, 설득수요자, 경쟁자, 이외방문자, 절교여부자, 친교여부자 등과의 이해 우열 세력 원조 가해 승부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놓았다. 즉 되는가, 안 되는가? 좋은가 나쁜가? 진행할까, 물러날까? 에 대해서다.

■ **항목별 당면사 판단 :** 임신출산사, 소송사, 여행사, 가격고하사, 묘지사, 승진사, 전근이동사, 퇴직사, 발탁공명사, 구재사, 시험합격사, 취직사, 선거당락사, 가정사, 매매사, 가출사, 혼인사, 질병사, 사망여부사, 투자사, 채용사, 경기승부사, 색정의심사, 이사길흉사, 농작물재배사, 귀신침범사, 부정침입사, 산소탈사, 근친상간사, 길방 택일, 기후사 등 등에 대한 큰 판단과 이외 100여 가지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의 답을명확하게 밝혀놓았다.

■ **본인의 사회계층, 상대방 신분, 직급, 부귀빈천의 구분 및 진로, 적성 등 일생사 판단 :** 내 귀착 신분은 무엇일까? 상대의 신분은 무엇인가? 본인과 상대방의 일생은 부귀빈천 중 어느쪽인가? 무슨 일, 어떤 직업이 적업인가? 일생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일생 본인과 상대방의 질병은 무엇인가?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인가? 본인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는 미인인가? 박색인가? 남녀 부부 연인의 성격과 인성은 어떤 특징인가?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는가? 등 등의 답을 확실히 적어 놓았다.

■ 신생아의 미래 신분의 방향, 초중고생들의 적성과 장차의 종사 분야, 청년들의 자기 진로와 신분의 정도를 스스로 예견할 수 있고, 또 본인과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대의 미래, 즉 귀착될 직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어김없이 적시해 놓았다.

육임 시보(時報), 내정(來情)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알 수 있는 항목 : ○신분은 무엇인가? ○부빈 귀천 어느 쪽인가? 현재 유여한가, 곤궁한가?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했는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안고 있는 비밀, 고민은 무엇인가? ○어떤 鬼害, 不貞, 山所脫을 받고 있는가? 천도, 시식, 부적의 효과가 있겠는가? ○방문자의 심중은 신뢰, 고집, 설득, 불성 중 어느것인가?

■ 자기가 일으킨 일인가, 타인으로 부터 당한 일인가?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상대의 말이 진실한가, 진위 반반인가, 거짓인가? 등 등이 밝혀져 있다.

육임 성부(成否), 호 불호(好不好), 진퇴(進退) 여부

■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판단 :**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될까? 안 될까?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좋을까? 나쁠가?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 또는 중단해야 할까? 등등이 밝혀져 있다.

다운받는 주소 : www.aua.ac – 육임쇼핑 바로가기 –

● 종합 '장중비결(掌中秘訣)' 현금 입금 하실 분 3만원 할인 ● 가격 : 300,000원
● 농협 317-0013-9239-01 (입금자 : 천안종) / ● 문의 : 직통 010-6400-093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AUA

각종 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끝없는 지장보살의 원력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㉛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3

우란분절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법당에 울려 퍼지는 낭랑한 스님들의 염불이 그리워진다.

"지장보살님께 일심으로 귀의하며 청하옵나이다. 자비인연 고루짓고 온갖 선행 모두 쌓아 고통 받는 모든 중생구하시려 육환장을 짚고 지옥문을 활짝 여시니 손바닥위의 여의주의 밝은 빛이 널리 대천세계까지 빛나니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서 언제나 계시며 남쪽 염부제중생들이 지은 공덕을 증명하려는 대비대원 대자성존의 지장보살마하살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자비로써 이 도량에 오시어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꽃과 향을 공양하며 청합니다.(3번)"

지장불공을 할 때 스님이 요령을 악기로 사용하며 하는 염불로 지장보살을 청하는 '정사(請辭)'다. 이처럼 불공 할 때는 불보살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해야 하는데 지장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지장경〉에 담겨져 있다. 이 경은 모두 13장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 경을 통해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의 존재의미와 원력과 수행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치고 지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제1장은 도리천에서 우주법계에서 모인 엄청난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마야부인과 지장보살을 만나게 하는 신통을 보이시며 이 두 분의 원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설 무량아승지 지옥세계에 출장 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장보살들의 아바타(分身)들이 법회에 모인다. 이들이 다 모이자, 부처님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수기를 받게 하고, 나의 시대인 56억 7천만 년이 지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여의어 해탈할 근기로 교육시켜 수기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장은 석가부처님께 수기를 받는다. 제3장은 마야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중생의 업연으로 인한 과보에 대해 질문하자 세밀하게 중생들의 선악업보와 지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염부제 중생이 지은 업으로 받는 과보에 대해 광목을 등장시켜 설명하고 있고. 제5장은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이 겪는 지옥의 과보를 알려달라고 하자 온갖 지옥의 명칭과 그곳의 모든 환경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6장은 부처님이 모든 보살마하살과 천룡팔부에게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하고 제도하는 일을 칭찬하시며 모두 이 경전을 잘 옹호하라고 하신다.

제7장은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중생들은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 속을 걷는 것과 같이 갈수록 피곤하고 무겁고 수렁에 빠져드는 삶을 살고 있어 너무 불쌍하다. 간혹 선지식을 만나면 그 곳을 벗어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듯이, 살아서 악업을 행한 이가 갑자기 죽어도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49일 동안 착한 공덕을 닦아주면 죽은 이도, 산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듣던 대변장자가 정말로 명을 마치고 죽을 때 그를 위해 공덕을 닦고 49재를 지내면 죽은 이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냐고 묻는다. 지장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에 불보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한 인연이 생긴다. 그의 권속이 49재를 지내며 선업을 쌓는다면 죽은 이는 7분의 1의 공덕으로도 충분히 해탈하고 나머지 6의 공덕은 산사람에게 돌아가니 산 이와 죽은 이가 다 함께 무량복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제8장은 염라와 그의 권속인 악독귀왕등 대귀왕들과 그들 아래 백천만명의 소귀왕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도리천에 도착해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자꾸 찾아오니 지장보살이 나서서 못 오게 해 달라고 청한다. 제9장은 중생이 목숨을 마칠 때에 부처님의 명호를 본인이나 가족이 부르기만 하여도 한량없는 죄업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제10장은 보시한 공덕을 어디에 회향하느냐에 따라 복락의 결과가 다름에 관한 것이다. 제11장은 지신(地神)인 견뢰지신에게 모두 지장의 존상에 예배하고 〈지장경〉을 읽고 고해에서 벗어나게 되니 이들을 옹호하라고 부촉하는 내용이다. 제12장은 관세음에게 지장보살에 대해 보고 듣기만 하여도 이익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제13장은 허공장보살에게 지장을 예배하고 칭송한 공덕이 28종의 이익으로 나타나니 천상과 인간에 부촉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서울 반야사 주지〉

빈궁함 부처님께 바치니 만사형통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㉚ 수행이 해결한 먹고사는 문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바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장에서 오래 머물며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되자 '먹고사는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취직할 적기를 놓치면 애써 얻은 명문대학 출신의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금강경〉 공부는 세상에 뒤떨어지는 공부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욱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공부다. 자신이 빈곤하다는 생각, 장래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하면 든든한 부처님 광명이 임할 것이다. 이 부처님 광명은 그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할 것이니 아무 염려말고 〈금강경〉 공부에 전념하라."

모든 문제를 부처님께 바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어느 날,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량에 쥐가 모여들어 소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쥐약이라도 놓아 퇴치하고 싶으나 불살생의 계를 지켜야 하니 그 자체가 화두였습니다. 고민 끝에 선지식께 쥐 퇴치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쥐약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쥐를 목장에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쥐가 싫다, 쥐가 많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렇게 바치면 쥐가 사라집니까?" "어째서 쥐가 그렇게 들끓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쥐의 마음 즉 빈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쥐가 싫다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마음속에 쥐의 마음인 거지 마음, 거저먹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침 어떤 도반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법당에 선물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양이는 수많은 쥐에 겁을 먹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 야생 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도장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두당 평균 10kg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 생산량으로 우리 도반들이 도량에서 자급자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지 마음이 있기에 쥐들이 들끓는다는 말씀을 들은 후, 빈궁한 마음이 적은 생산량과도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의 거지 마음이, 생산량이 적어도 이에 만족하며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불립문자란 글을 대할 때 궁리(알음알이)하지 말라는 뜻이지, 글의 참 뜻을 알려는 노력 즉 연구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는 자료를 찾으며 연구도 병행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산유량 증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빈궁함이 사라지게 되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생으로 달아난 고양이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야생화된 고양이는 과거 쥐를 보면 달아나던 때와는 달리 슬슬 쥐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쥐들도 야생 고양이 한 마리의 기운에 점차 압도당하면서 하나 둘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쥐의 궁한 마음, 갉아먹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쥐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선지식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쥐가 사라짐과 동시에 목장에서의 우유 생산량 증가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임제 할 '이 뭣고'

임제의현(臨濟義玄) 선사가 황벽 스님의 문중에서 수행할 때 그 행(行)이 순수하고 깊이가 있으므로 윗 수좌인 목주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 와 있는 지가 얼마나 되는가?"

"3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실(祖室)스님에게 법을 청한 적이 있는가?"

"아직 묻지도 않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어찌 조실스님께 불법의 대의(大義)를 묻지 않는가?"

이에 임제 스님은 바로가서 물었다.

그가 묻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은 바로 몽둥이로 후려갈기니 왜 맞는지도 모르고 기어 나왔다.

목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문답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묻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바로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통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가서 물어보게"

이와 같이 세 번을 묻고 세 번을 얻어맞고 난 후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임제 스님이 하직 인사를 올리자 황벽 스님이 말했다.

"너는 고안탄두(高安灘頭)의 대우(大愚)스님에게 가거라. 반드시 너를 위해 설(說)해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에게 가니, 대우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 스님의 휘하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무슨 말이 있었는가?"

"제가 불법의 대의를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몽둥이로 얻어 맞았는데,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벽 스님이 그렇게 노파심(老婆心)이 간절하여 너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바보같이 묻는구나"

그러자 임제 스님이 이 말에 크게 깨닫고 혼자말 처럼 이렇게 말했다.

원래황벽불법무다자(元來黃蘗佛法無多子)로구나!

이 말을 들은 대우 스님이 바로 임제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했다.

"이 오줌싸개 새끼야, 방금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더니 이제는 "황벽불법은 별것 아니다라며 도대체 너는 무슨 도리(道里)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라"고 하니,

이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 쥐어박았다.

이렇게 깨친 도리(道理)를 전하니, 이에 대우 스님이 말했다.

"너의 스승은 황벽이지 나는 아니다"

그러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을 하직하고 다시 황벽 스님에게 돌아왔다.

"네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어느 때에 깨닫겠느냐?"

임제 스님이 말했다.

"다만 조실(祖室)스님이 노파심절(老婆心切) 하기 때문입니다."

"대우 스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과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니, 황벽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붙잡아서 한 번 몽둥이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군."하시니, "뭐 멀리 갈 것까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먹이십시오 하며 임제 스님이 손바닥으로 황벽선사의 뺨을 갈겼다.

"이 미친놈이, 여기에 돌아와서는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그러자 임제 스님이 바로 '할' 했다.

이렇게 언어와 문자를 떠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스승의 뺨을 갈겨 인가(認可)를 받으면서 임제할의 선종 가풍을 세웠다.

우리도 생활속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 '이 뭣고'가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되도록 한다면 금생에 생사병(生死病)에서 꼭 벗어나게 될 수 있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 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왼쪽부터 동화사 지우 스님, 불국사 현법 스님, 고운사 도륜 스님, 직능대표 사회분야 도심 스님.

16대 종회 보궐 끝… 78석으로 늘어

동화사 지우 · 불국사 현법 · 고운사 도륜 스님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9교구 동화사 지우 스님, 제11교구 불국사 현법 스님, 제16교구 고운사 도륜 스님이 8월 30일 당선됐다. 또한 앞서 27일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도심 스님이 선출되면서 중앙종회는 78석으로 늘어났다. 총무부장과 사서실장으로 임명된 성문 스님과 정범 스님은 보궐선거공고 이후 사직해 후임이 선출되지 않았으며, 월정사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지우 스님은 진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종책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관오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법주사에서 수계했다. 법주사 교구종회 부의장, 개태사 주지,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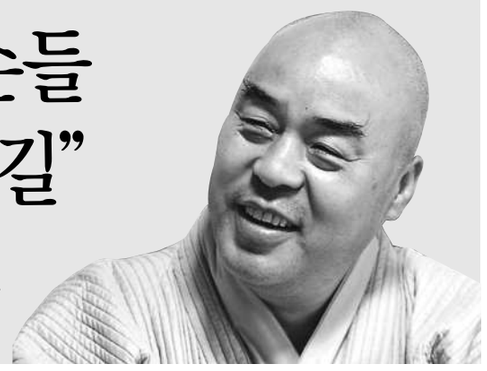
도륜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장, 영주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와 서악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직능대표 사회분야 도심 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수계했다. 총무원 조사국장과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강제징용 희생자후손들 민족 정체성 잊지 않길”

Interview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원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3년 만에 건립 “뜻 깊은 일”
후손 봉사자 모집 · 운영 등
한 민족 역사교육 계기 기대

“부산우리민족 각 대표 · 회원들이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들을 알리고 기리는 일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추모관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희생자 후손들 가운데 청소년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추모관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로 강제 징용돼 귀국하지 못하고, 무덤마저 방치된 무연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관이 3년 만에 완공됐다.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부산우리민족)은 8월 30일 사할린 소재 추모관서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 추모관’을 준공했다. 부산우리민족 상임대표 무원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은 완공 기념식을 앞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과거 일본 식민지였던 남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간 조선인 대부분은 미혼 남성들로, 4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소련으로 바뀐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귀국을 꿈꾸며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무연고자는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무덤은 광복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과 공동묘역 등에 방치됐다.

부산우리민족은 무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5년 8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모역 내 합동추모비를 세워 해마다 사할린 교포와 함께 추념식을 치러왔다. 이후 추진된 현지 추모관 건립 과정서 부산우리민족 공동대표인 현덕수 사할린 한국한인회 회장의 제안은 결정적이었다.

“현덕수 회장이 먼 타국서 건축업으로 번 돈과 농장 부지를 불사에 보태라 선뜻 내준 덕분에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언급할 수 없을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기금운동을 해준 한겨레신문과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조정래 작가 등 위패를 모실 수 있게 도와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순탄할 것만 같던 추모관 건립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무원 스님에 따르면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조상을 예경하고 추모하는 문화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립에 대한 역사인식 교육도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모제 등을 처음 접했을 때 경계적 태도를 취하는 유가족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현 회장이 동참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정서와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위패 7800여 기가 모셔질 공간을 비롯해 역사자료관과 게스트하우스까지 많은 정성을 들였으니 부디 희생자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

“가르침 따라 국민에 봉사”

공무원불자연합회, 8월 25~26일 수련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위원)는 8월 25~26일 장성 백양사에서 ‘2018년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법회에는 기관 불자회 회원과 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서는 광주광역시청불자회장의 사회로 김상규 공불련 회장의 인사말, 김영권 장성 부군수의 환영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해외입양인 템플스테이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방한



해외로 입양된 한인들이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사)해외입양연대(G.O.A. ‘L)는 해외 한인 입양인을 초청해 8월 25~26일 경주 불국사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해외입양인 16명이 참가했다. 템플스테이는 모국 방문 및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인 ‘2018 First Trip Home, 고향으로의 첫 여행’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지원 기자

법주사, 청주지법과 청소년 선도

보호소년 및 위기가족 템플스테이 지원 협약



법주사 스님들과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보호소년과 위기가족 템플스테이 MOU를 맺고, 청소년 선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충북 보은 법주사가 지방법원과 함께 청소년 선도에 나선다.

법주사(주지 정도)와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8월 28일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돕기 위해 법주사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가족 갈등 치유, 가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아동치료 보호시설에 위탁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심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법주사와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나선 점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대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교사 40명을 법주사로 초청,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동창회, 경주캠에 장학금

장학생 17명에게 총 3400만원 수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2학기 동국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7명에게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 **동국대 법인 초 · 중 · 고교 교원 교장 및 교감**

△김형중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교장
△박현숙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 교장
△전정란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교장
△이영숙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 교장
△허백무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감
△박규태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 교감직무대리
△김웅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교감직무대리
△박현정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교감직무대리
이상 9월 1일자

이지수 前 동국대 인철과 교수 별세



이지수 前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사진〉가 8월 26일 오전 2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이지수 前 교수는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인도 푸나대학에서 철학과 범어를 공부했다. 1985년 진주 국립경상대 철학과 교수로 초빙됐으며, 1987년부터 모교인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4년 정년퇴임했다.

주요논문으로 ‘인명입정리론의 변증법적 방법’ ‘세친의 삼성론에 대하여’ 등이 있으며, 역 · 저서로는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인도철학〉, 〈바가바드기타〉, 〈산스끄리뜨의 기초와 실천〉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수계로 진실한 불자 거듭나길”

정읍 내장사, 하안거 해제 이어 수계법회 봉행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하안거 해제와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25일 대웅보전에서 열린 수계법회에는 8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전계사 도완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 오계, 십선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내장사 불교대학 5기생들과 정읍 105연대 불자장병들도 동참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보살도를 행할 것을 맹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도완 스님은 신현철 불자 등 수계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 청정한 행, 진실한 언어, 맑은 정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정읍 105연대 이재원 상병 등 불자장병들도 수계법회에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군 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감사향기 가득한 어린이 안거

조계종부산연합, 어린이 · 청소년 재가안거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와 사단법인 동련이 공동주최한 ‘어린이 · 청소년 21일 재가안거’가 회향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8월 26일 홍법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 21일 재가안거’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사진〉 아이들은 21일간 작성한 ‘내 안의 감사향기’ 수행집을 들고 스님들에게 낙관과 기념품을 받았으며, 꽃비가 내리는 형상의 만다라에 기뻐했다.



심산 스님은 “마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1일 간 수행 동참한 어린이들은 ‘내 안의 감사향기’ 수행집에 일상을 기록하며 감사수행일기 및 사경, 사불 등 어린이 눈높이 맞는 수행을 이어왔다. 안거에는 서울 원광사 국방부 어린이법회 회원을 비롯한 총 11곳, 523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초기불전연구원, 〈디가니까야〉 개강

총 10회, 11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부처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빠알리 경장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 강의가 열린다.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2018년 가을 제9기 초기불전학림 강의로 〈디가 니까야〉를 선정했다. 강의는 총 10회로 8월 28일~11월 6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에 위치한 보리원 내 초기불전연구원이며 교재는 〈디가 니까야〉 제1권, 강사는 각묵 스님이다.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8년 정진하다가 빠알리 삼장을 한글로 옮기려는 원을 세워 10여 년간 인도와 미얀마 등지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를 배웠다. 인도 뿌나대 산스크리트 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역서로는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전 분석과 주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등이 있다. 이번 강의에 사용될 〈디가 니까야〉의 역자도 각묵 스님이다.(055)321-857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서장사, “티베트대장경 역경 중심처로”

회주 진옥 스님, 팔상성도 점안법회서 의지 전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 천마산 서장사가 티베트대장경 역경 후원 및 재가 · 승가 교육을 위한 중심 도량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서장사 팔상성도 점안 및 백중 회향법회에서 회주 진옥 스님은 법문을 통해 티베트 대장경 역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 보살도를 실천하고 함께 역경불사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 서장사(주지 범국)는 8월 25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팔상성도 점안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서장사 팔상성도는 회주 진옥 스님이 7년 전 인도 성지순례 중 불사를 요청한 것으로, 당시 계획한 것 보다는 늦어졌지만 서장사로 이전 계획을 세운 후 바로 완성됐다. 서장사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일대기를 8장면으로 설명해 둔 입체상으로 불자들이 개금불사 까지 함께 동참해 장엄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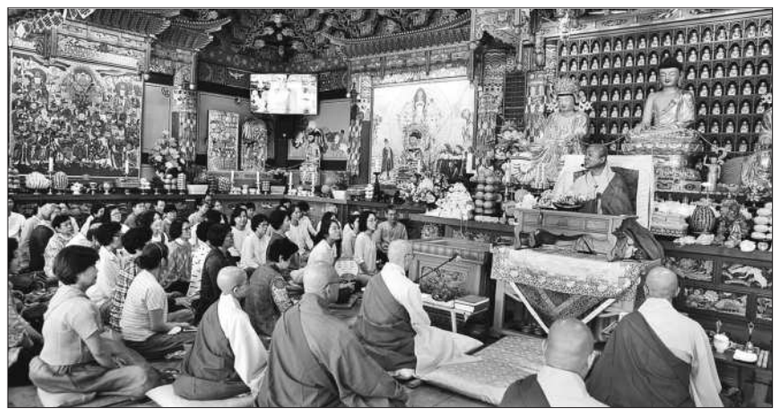
주지 범국 스님은 “팔상성도를 모신 이유는 재가불자들이 팔상성도를 보면서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법하게 따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원력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법회는 점안식 및 법회 그리고 백중기도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회주 진옥 스님은 “세상에 많은 절이 있지만 무엇보다 서장사는 티베트대장경 역경 불사를 위해 존재한다”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장사는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복된 길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고 법문했다.

서장사는 앞으로 도량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대장경역경원 불사를 계획 중이다. 2017년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길상사로 문을 열어 올해 5월 울산 북구 관문길에 위치한 천마산 아래 서장사로 중창 이전해 티베트대장경역경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현재 회주 진옥 스님은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지 범국 스님은 연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7년 만에 인도서 완성한
팔상성도 점안해 ‘눈길’
티벳대장경 역경불사에
전문연구 환경 조성 계획



울산 서장사가 8월 25일 대웅전에서 팔상성도 점안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티벳대장경 역경을 위한 중창불사”라며 함께 동참하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범국 스님은 “현재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재원과 환경 그리고 인력을 원만하게 갖추고 역경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서장사 인근 땅과 건물들을 매입하고 공간을 구성해 역경 불사에만 전념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달라이라마가 1967년 9월 25일 한국 청담 스님 편으로 티베트대장경을 기증한 것이 인연이 됐다.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할 때 가슴에 품고 온 티베트대장경 3질 가운데 1질을 당시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한 청담 스님에게 전했고, 청담 스님이 동국대에 기증했다. 이후 번역 작업이 없다가 2008년 해외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법회에 손동진 前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동행했다. 당시 손 前총장은 달라이라마에게 “대장경을 잘 보관하고 모시고 있다”고 하자 달라이라마는 “경은 모시는 게 아니다. 번역을 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줘야한다”라며 미화 20만불을 희사했다.

이후 2009년 티베트장경연구소가 설립됐으며, 2014년 5월 경전 역경불사가 시작됐다. 이후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 불교철학을 위해 티베트 학승이 가장 보편적으로 읽는 논서 〈불교 철학의 보물꾸러미(종의보만론)〉, 〈논리에 이르는 신비로운 열쇠〉, 〈쉽게 배우는 현대티베트어〉 등을 발간했다. 현재는 〈번역명의대집〉 번역과 한글술어모음작업 등 번역용어 현대화 및 기초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나눔의 의미 일깨운 법회 20년

태고종 원광사, 추석절 이웃사랑 백미나눔 법회

부산 태고종 원광사가 나눔의 의미를 재가자에게 일깨우는 법회를 20년 동안 봉행해 훈훈함을 남기고 있다.

원광사(주지 지광)는 8월 26일 ‘추석절 이웃사랑 백미 나눔 법회’를 경내 법당에서 봉행했다. 원광사 주지 지광 스님은 평소 나눔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출가를 결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나눔과 봉사를 강조하며 실천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원광사는 백미 10kg 300포를 각각 부산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 구에, 또한 100포를 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살인적인 물가에 어려움을 호소, 백미 나눔을 더욱 반겼다는 후문이다.



‘추석절 이웃사랑 백미 나눔 법회’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백미를 나눈 원광사. 법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회에서 주지 지광 스님은 “1년 동안 잘 나눠주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나눔 법회를 연다”며 “매년 나눔 법회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나눔 씨앗을 뿌리는 마음이 돼야 한다. 나눔 공덕으로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사 불자들은 나눔 실천에 동참해 삶이 달라짐을 경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눔을 위해 공병과 폐지를 모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하는 불자가 있을 정도다.

윤화자(66) 불자는 “새벽에 밖에 나가보면 거리에 버려진 공병이 보인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나눔에 동참하고 싶어 폐지도 모으고 병을 처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미용실에 갈 돈도 아껴 나눔에 함께 동참했는데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스님께서 평소에 가사도 기워 입으며 청정한 모습을 보이셨고, 불단에 불자들이 올린 것을 사사롭게 쓰지 않으며 모두 나눔에 회향하는 분위기 덕에 마음을 내어 실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영길 신도회장은 “2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스님의 변하지 않는 원력과 신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능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나눔 법회에는 원광사 주지 지광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원묵 스님 및 윤영길 신도회장, 김수곤 원광장학회 상임이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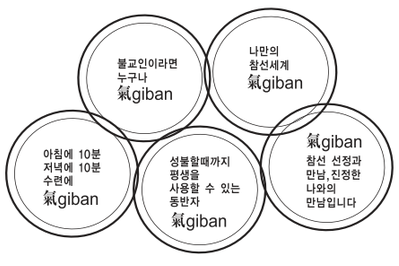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말자.

〈법구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천둥번개 삼키는 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기도 예불스님 구함

처사님 (봉고 운전면허 소지사)
절에서 공부할
행자 심부름

(부산)

010-3840-43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구병신통술로 병을 다스리는 도인입니다.

오직 손으로 만져주고 치유하는 신통력입니다
치료 받으실 분은 문의하십시오

육관도인 010-6357-5152

찾습니다

성오스님을 찾습니다.

2004년도 단양 댐 천장사에 있다가 당시 재산에 계셨던 스님께 갔었던 **각연**입니다.
그때 소승의 법명을 스님께서 자안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안(각연)**

010-3526-7066

근원으로 깨어남 아봐타 ®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선재아봐타마스타

010-6822-7359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현불 종도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와서 바로 이세상을 보라. 왕의 치장한 수레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빠져들지만, 현명한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법구경〉



지리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19,000㎡
- 주변 산사찰. 기도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7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지리산사찰(급)안내
- 산중기도도량.토지5,000㎡
- 목조법당.요사채.삼성각.공양간
- 풍광일품 위치좋음.건물5동
- 운영잘됨. 스님 건강상 양도
- 양도가액 : 9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거제시 대금산하 총부지 1100평
- 종교집회장 300평 허가득
- 토목공사,700평 완성되어있음
- 주택 34평,임법당, 삼존불 27평 소불700불,산신각,심야보일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수도시설
- 포교원, 전원주택 모두 가능함
- 가액 : 6억(은행 2억있음)

010-9113-001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70평 (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실내화장실 2개)
- 2층 : 25평(법당, 상담실)
- 도시가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천, 월 80만원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토굴하실 분
- 위치 : 경북 청도 금천면
- 대지 : 110평
- 건평 : 20평(거실, 방 2) 창고, 기름보일러 설치
- 판넬구조, 공기좋음, 토굴로 사용하실 스님수행공간 최적임
- 주변유실수 많음(살구,감)
- 가액 : 1억

010-8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60평(대지)
- 법당 : 30평(단청,청기와,2층)
- 요사채 : 30평(1층,방3,종무소)
- 공양간 : 지하15평
- 기타 : 석등,산신각 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정말 좋습니다.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단청, 황토)
- 산신각 : 15평(목조,닷집)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구억구천만원
- 특징 : 도심 외각에 위치한 대가람의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010-5258-1570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양시 원당 원당역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 법당 60평. 10년째 하던 자리 입니다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합니다
- 4층 중 2층 대웅전1,삼성각1,용왕전1, 화장실2,방3개,부엌,베란다,에어컨5대,
- 가액 : 2천에 월80만원, 시설비는 둘러보시고 판단하셔서 양심껏 주세요. 즉시법회 가능함

연락처 010-6795-1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 3층 건물 2층 50평
- 삼존불,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급 보시

010-3884-0122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성(위치 좋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상태 양호(수리완료)
- 가액 : 3억 5천

010-9485-931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6천안고 2억4천

010-8643-5235
010-7475-0474

20년기반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아파트 밀집 지역(상가분양 받았음
- 제반시설: 법당, 주방, 상담실, 접수실, 주차장
- 70평, 5층건물, 즉시법회가능
- 양도가액: 1억4천5백만원 은행대출 3,400만원안고 1억천백만원

010-9878-128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방2,주방,화장실,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35평,텃밭,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 인접 (도보 20분, 차량 +2~3분)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포교당(창업)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코너 건물
- 2층 25평, 시설비 없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건물주가 적극 협조 (본 건물에 거주)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1천 2천만원

전화:010-6241-8499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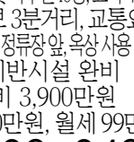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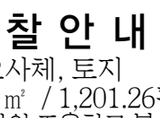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 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교통편의,지하철 1호선 안지랑이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 별채,산신각,종무소외 넓은마당
- 사찰외 넉넉한 주차장
- 조용하고 아담한 야산밑 평지에 위치한 도량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 가액 : 6억8천만원

문의전화 010-8718-552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5분거리
- 평수 : 약1,700평 • 가액 : 14억
- 대웅전1동, 삼성각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높이9m 30㎝ 둘레13m 돌탑108개 요사채2동
- 정자각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중 건평 : 100평
- 법당 :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 5천세대 부근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019-5385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찰(터)안내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산 약 17,000여평
- 공시가 반가격 급 양도
- 공시가 60억
- 계약 후 묘지 이장 조건
- 지불가능한 분만 상담가능

010-3184-5362

상가주택 포교원(급)안내
- 투자가치도 좋음, 급 양도. 포교원 3층 건물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 있음, 건평 90평, 각 30평 3층 건물
- 1층 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해우소/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 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3억 9천만원 (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대만불교 호스피스, 日불교계도 '주목'

일본임상종교사회, 타이베이에 연수단 파견

박영빈 객원기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를 정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불교정신으로 활동하는 '불교호스피스'. 지난 8월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불교호스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대만과 이를 본받으려는 일본 불교계의 현황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1월 일본 종교계 호스피스협회인 '일본임상종교사회'는 부회장 오시타 다이엔(大下大圓) 스님을 인솔로 의료계·종교계 관계자 10인의 연수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다이엔 스님은 "대만은 일찍이 불교호스피스가 발달했고, 이미 선진화됐다. 대만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시찰 의의를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유돼야 할 고통의 하나로 '정신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도 이에 포함된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근간한 호스피스가 발달, 성직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이에 힘입어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종교를 가리지 않는 '임상종교사'가, 대만에서는 스님들을 특화시킨 '임상불교종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접근법과 그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정신적인 케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초고령사회 일본, '죽음' 화두
"대만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
대만서 자택방문 호스피스 등
출가자 전문적인 역할 모색

타이베이의 중심에 자리한 대만대학병원. 6층에 자리 잡은 호스피스 병동에 일본 시찰단이 방문했다. 대만 최고의 대학이 세운 병원으로 공립병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곳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마친 스님들이 상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만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이엔 스님(왼쪽 사진). 오른쪽은 환자 사망 후 8시간 동안 염불해주는 조념염불(助念念佛)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법당.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연수단을 안내한 첸칭유(陳慶餘) 명예교수는 "스님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의료진들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환자가 안심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성(佛性)'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같은 병원의 의사 차이자오쑨(蔡兆勳)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기에 인생의 의의와 가치,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호스피스는 환자를 성장시키는 치유"라고 평가했다.

호스피스 병동을 돌아본 다이엔 스님은 "일본은 인구의 30% 정도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죽음이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기 직전이다. 일본의 불교호스피스 도입은 대만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불교호스피스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서 대만 불교호스피스 단체에서는 새롭게 진행 중인 활동을 소개했다.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해 퇴원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호스피스다.

지난 2013년 대만대학병원에서 상주하며 충분한 경험을 쌓은 스님들과 간호사들이 독립해 세운 이 호스피스 활동은 지난해까지 209명의 환자를 돌봤다. 방문호스피스로 활동 중인 비구니 종둔(宗惇) 스님은 "종종 심경의 변화로 더 이상의 방문을 거절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인욕하는 마음으로 환자분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린다"며 호스피스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말했다.

시찰 마지막에 열린 양국 불교호스피스간의 정보교류에서 대만대학병원 차이자오쑨 주임은 "2000년도에 처음 불교호스피스 양성이 시작됐다. 그리스도교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호스피스 전통에 불교정신을 도입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일본 종교계의 호스피스 활동은 2012년 동일본대지진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종교인들이 모인 것이 발단이 됐다.

양국은 또 "아직 불교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며 특히 출가자가 호스피스 활동을 할 경우 겪는 여러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할이 먼저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연수에 참가한 일본의 타마오키 묘유(玉置妙憂) 스님은 "출가 전에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스님에게 하는 말과 간호사에게 하는 말은 명확히 그 차이가 있다"며 "타종교나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출가자에게 갖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 양국은 점점 주목받는 불교호스피스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자"며 의기투합했다.

"이슬람 기도 소리 커" 항의한 불교도 실형

인도네시아서 모독죄로 1년 6개월 금고형 처해

'일상생활 지장' 호소했지만
재판부 '특정종교 대립' 판단
이슬람 단체들 "지나친 판결"

8월 23일 '더 데일리 자카르타' 'AFP 뉴스'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불교도 여성이 이슬람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 현지 이슬람 단체들도 지나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카르타주(州), 탄중발라이시(市)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메일리아나 씨(44)는 집근처의 모스크에서 울리는 '아잔(이슬람교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기도소리)'의 스피커 음량이 너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새벽부터 큰소리로 울리는 아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

이 소식이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불교도의 항의로 아잔이 금지됐다'는 거짓뉴스로 와전되면서 지역 무슬림들이 분노했다. 일부 과격 무슬림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불교사찰과 도교사원를 습격, 방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사건은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나서 '모스크에서 방송하는 아잔음량을 조절할 것'을 지시하면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를 통괄하는 '이슬람 학자회의'가 메일리아나 씨를 기소했다.

8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법정은 "피고는 특정종교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감정을 내세운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흐드라툴 울라마'의 로비킹 이사장은 "아잔의 음량이 크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특정 종교나 공동체를 향한 증오표현이나 적대자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소음에 대한 항의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건강이상설 확산… 전립선암 말기

미국서 치료 중 정보 누설
티베트 망명인 결집력 '비상'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83·사진)가 전립선암 말기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티베트 망명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일 경우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8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인도 뉴델리지국 발 보도를 통해 "달라이 라마가 현재 전립선암 말기이며 이에 따른 티베트 망명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이 같은 건강이상설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달라이 라마의 미국 치료 과정 중 건강 정보가 누설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스위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인도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치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누설된 것으로 알려져 티베트 망명정부에서는 스위스 측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티베트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출처=thedailybeast

최근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5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치료를 받았고, 2016년에도 미국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지난 6월에도 한 인도 언론이 달라이 라마의 전립선암 말기설을 제기한 바 있다.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됨에 따라 수년 내 사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약 달라이 라마가 사망할 경우 티베트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1959년 달라이 라마 인도 망명 후 약 13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중국을 탈출해 망명, 현재 약 8만5000명이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결국 티베트 망명 정부가 올 연말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뽑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톱상 상가이 티베트 망명 정부 총리는 "각파 고승들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모여 달라이 마라 15세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 방법은 비밀투표 혹은 달라이 라마 14세의 지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 후계 선출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승려, 경내서 9살 소년 폭행

"법회 중 장난" 결국 사망

태국의 한 승려가 경내에서 9세 소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8월 2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깐짜나부리주(州) 한 사원의 수파 차이 수 티야 노(64) 스님은 소년을 대나무 막대기로 가격하고, 기둥을 향해 그의 머리를 힘껏 밀쳤다. 수련을 위해 절에 머무르던 소년이 법회 도중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자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소년은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외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3일 숨졌다는 게 익명의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소년의 시신은 현재 부검 중이다.

스님은 지난 26일에 성직을 박탈당하고, 며칠 후 폭행죄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확인되면 '폭행치사죄'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년의 어머니 수쿤야 턴힘은 "승려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범죄경력조회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5〉 선정(禪定, 호흡 수행 12단계)

행복은 괴로움 소멸한 상태

니밋따 수행을 통해 니밋따는 점점 더 안정되고 더 밝아집니다. 니밋따 수행에서는 니밋따가 고정되는 것과 더 밝아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빛이 밝게 빛나며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니밋따가 안정되면 더 강한 에너지가 니밋따로 흘러들고 니밋따는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행복감을 줍니다.

이토록 강렬한 현상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수행자는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니밋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강해지고 니밋따의 힘도 몹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니밋따가 수행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터널에 빨려 들어가듯이 니밋따에 빨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밋따 수행을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니밋따가 빛의 터널처럼 끌어들이면 있는 그대로 내맡기기 바랍니다. 빛의 터널로 빨려든다고 해서 미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상의 깊은 상태, 선정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통찰지를 얻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계발되는 과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맡기면 수행자가 니밋따 안으로 녹아들어 니밋따와 하나가 되거나 혹은 니밋따가 수행자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행의 대상이 변합니다. 이제 수행의 대상은 니밋따가 아니라 행복감입니다. 이 상태가 선정입니다.

선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행복감입니다. 강한 행복감이 선정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호흡은 수행자를 니밋따까지 데려다주었고 니밋따는 수행자를 선정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선정에서 수행의 대상은 호흡도 아니고 니밋따도 아닙니다. 행복감입니다.

몸의 떠남, 마음의 떠남

초선의 행복감은 떠남, '위웨까'에서 나온 기쁨과 행복감입니다. '위웨까'에는 '까야 위웨까'와 '찌따 위웨까'가 있습니다. 몸의 떠남과 마음의 떠남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수행처에 가서 혼자 지내는 것이 '몸의 떠남'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의 전원을 끄는 것도 '몸의 떠남'입니다. 세상의 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몸의 떠남'의 의미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떠나는 데 있습니다.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 전화기의 전원을 끄는 것처럼 몸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각, 청각 등의 다섯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떠남의 상태에서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선정 정형구 첫 부분의 빨리어는 '위윗쩨와 까메히 위˘ 짜 아꾸 살레히 담메히'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에서 감각적 욕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까마'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이 단어는 감각적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복수형으로 사용된 이 맥락에서는 감각적 욕망이라기보다 '다섯 가지 감각' 혹은 '다섯 가지의 감각에서 비롯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까마 로까'가 다섯 가지 감각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욕계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위윗쩨와 까메히'라는 구절은 '다섯 가지 감각을 떨쳐버리고'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다섯 가지 감각을 떨쳐버렸으므로 선정에 들어가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느끼거나 신체적인 촉각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도 '소리는 초선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가시라는 것은 수행자의 초선이 그다지 깊지 않으면 커다란 외침 소리나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가시가 살갗을 찌르고 들 듯, 선정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명종의 알람 소리가 잠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정 수행이 깊어지면 초선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선정의 경험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우주 과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의 경험이 행복한 것은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 그 상태가 행복감으로 느껴집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좋은 약으로 두통이 완치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끝난 상태입니다. 괴로움이 멈추면 행복을 느낍니다. 몸이라는 커다란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초선에서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괴로움의 덩어리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은 모두 괴로움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으로 경험하는 쾌감도 여전히 둑카(dukkha),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몸이라는 괴로움, 다섯 가지 감각이라는 괴로움이 닫히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니밋따 안정되면 행복감 더 커져
수행 대상도 행복감으로 변해야
다섯 가지 감각 멀어지면서부터
멸진정까지 이어지는 수행 여정

초선부터 완전한 멈춤까지

그런데 선정의 정형구에서 부처님은 초선에 '일으킨 생각', 위딱까와 '지속적인 고찰', 위짜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생각과 고찰은 이미 다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초선의 상태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면 생각이 없습니다. 선정의 맥락에서는 '위딱까'와 '위짜라'가 생각과 고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선은 다른 선정과 다릅니다. 초선 수행의 대상은 행복감인데 그 행복감이 아직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 흔들립니다. 여전히 행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100퍼센트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99.9퍼센트는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행복감이 일어나면 수행자는 행복감이 사라질까 두려워 행복감을 잡으려 합니다. 행복감을 잡으려는 그 약간의 움직임, 그것이 선정에서의 위짜라입니다. 행복감을 잡으려는 약간의 움직임 때문에 행복감은 흔들리고 수행자의 마음도 행복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선정에서 벗어날 정도로 흔들림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자는 여전히 선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선정의 행복감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복감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흔들림이 일어날 때 다시 놓아버리는 것이 위딱까입니다.

초선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제2선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위딱까'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여전히 행복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잡으려 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미세해져서 행복감을 흔들지 않습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간략하게 경'에서는 '위딱까와 위짜라가 있는' 초선과 '위딱가도 위짜라도 없는' 제2선의 사이에 '위딱가는 없고 위짜라는 있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깊어지면 행복감을 잡으려는 움직임, 즉 위짜라의 활동이 너무나 미세해져서 수행자의 마음이 행복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딱가는 사라지고 위짜라는 훨씬 더 미세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행복감을 잡으려는 미세한 움직임조차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2선의 상태입니다. 행복감을 잡으려는 미세한 움직임이 사라지는 원인은 믿음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믿음이 일어나면 더 이상 통제하고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2선에 들은 후에 선정에서 출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충분히 머물렀어. 이제 나가야지'라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선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초선에서 제2선으로 넘어갔을 때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고요하게 머무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사라집니다. 제2선에서 사라지는 것은 '삐띠',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지복감을 줍니다. 제3선을 경험해야만 기쁨과 행복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하게 정지해서 머물면 행복감마저 사라집니다. 그것이 제4선입니다. 제4선은 완벽한 평온의 상태입니다. 제4선에서 수행자가 느끼는 행복감은 평온의 행복감, '우뻬카 수카'입니다.

제4선에 기초해서 네 가지의 무색계 증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가지의 무색계 증득은 제4선의 변형입니다.

첫 번째 무색계 증득, 즉 공무변처(空無邊處)는 영어에서 '무한한 공간의 토대'라고 번역됩니다. 공무변처는 '경계가 없는 공간의 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자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시간이 됩니다.

식무변처(識無邊處)도 '무한한 의식의 토대'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의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의식의 경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무소유처(無所有處)입니다. 없음, 무(無)를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는 자', 의식마저 사라집니다.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마음챙김은 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까닥, 마음의 동작이 정지합니다. 마음이 소멸됩니다. 여기가 멸진정(滅盡定)입니다. 몸이 사라졌고, 의지가 사라졌고, 기쁨과 행복감이 사라졌고, 아는 대상이 사라졌고, 아는 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선정과 무색계 증득, 그리고 멸진정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멸진정에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멸진정에서 나올 때 수행자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멈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② 사물 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착복무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587-8419

사) 대 한 불 교 불 음 원
원장 원명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사회자 큰스님께서 2개월이 넘게 해외 포교를 위하여 북 · 남미를 두루 순회하시고 지난 29일 귀국하셨습니다. 피로와 여독이 채 가시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만 저희들을 위하여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극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극하게 자기가 온 자리와 갈 자리, 또 지금 하고 있는 자리, 이것을 아시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죽으면 무슨 천당에 가느니 승천을 하느니' 이런 따위의 이론이나 잡담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앉아 계십니다.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내 주신 덕분에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심지어는 목욕하러 가서까지 설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두 달째 목욕을 못 해서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법석을 마련해 가지고는 거기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예정을 잡았었습니다. 두 달에 끝마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죠. 11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크니까요. 15시간 타는 데도 있고 뭐, 6시간 타는 데, 7시간 타는 데, 또 3시간도 탈 때도 있고 2시간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사흘들이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 몸을 지탱하면서 조금도 어떠한 내색이 없이 내내 그저 정진해 나갔습니다. 허허허…. 그래 여기 오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원불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내 종교만 좋다고 야단들 하고 남의 종교는 짓밟아서 뭉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하면 미신 소굴인 줄 알아요. 모두가 미신 소굴로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님네들까지 내쫓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 한마음으로 공부하듯이 '어느 종교든 한 뿌리 속에 있다' 고 얘기했죠. 한 지구에 붙어 사는 한 동물로서, 자기의 관념으로만 '내 종교가 옳다' 고 졸렬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역설을 했더니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찬성을 해 줬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찬탄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응이 되게 했고, 눈을 새삼스럽게 뜨게 했고, 귀를 새삼스럽게 열게 했다고 말입니다. 불교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은 정말 미처 몰랐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제자들은 "아이, 속 시원하다." 그러더군요. 허허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수적으로 이것을 믿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만사가 돼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참나' 인 자신의 뜻을 항시 중시하고, 항시 그 뿌리를 믿으십시오. 거기에다 거름과 물을 줘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와 잎새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서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그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따서 그런 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나무가 무성하질 않아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익지 못해서 그냥 말라 버리는 형상이니까 맛이 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공부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치도 에누리가 없는 공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서 1년, 2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렇게 바쁘게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 내에서도 정신이 없어합니다.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뭐, 거기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없어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치니까요. 그래서 저기서 설법을 하고서, 비행기를 금방 타고 와서 또 여기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저녁나절에는 피곤함이 좀 옵디다. 그래서 바람을 쐬려고 스님들하고 모두 산책을 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항상 알고 있고, 항상 하고 있고, 뜻으로도 항상 그렇건만 말입니다. 흑인이, 허허허, 새카만 흑인이 새카만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데 새카만 초콜릿을 손에 쥐여서 이렇게 물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나!' 하하하…. '이게 모두 철칙 같은 법이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구나! 흑인이 백인 낳는 거 봤나?' 하면서, 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딴 사람이 모르거나 안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못 해 보고 갑니다, 그렇게 에누리가 없건만. 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또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걸 새삼스럽게 본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혼자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허허…. 그러고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서서 오면서 얘네들더러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우습다고 웃고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세상만사,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그렇게 그러하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여러분은 천당 지옥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니까 천당인 거고 지옥이라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들 그냥 멋들어지게, 아주 유유히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에누리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소같이 살면 소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로 나올 것이고…. 하하하….

그런데 오간지옥이니 칼산지옥이니 또는 독사지옥이니, 이 모든 지옥 지옥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다' 하면은 짐작으로만 그냥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살다가, 땅속에서 기어 다니는 벌레의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땅속으로 다니는 독사 소굴에, 독사의 암컷 수컷이 행하는 거기다가 그 영령이 집어넣어져서 그냥 독사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그냥 독사로 살아왔으면 별문제인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독사로 들어가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독사로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살듯이 어떠한 한 몫어치만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고 하는 말은 전부 헌 갓쟁이 모양으로 다니며 그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땅속 깊이 뚫고 다니는 이런 것들 소굴에다 그냥 넣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넣어진다면 땅속으로 기어 다니는 벌레가 될 테니까 그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갔으니까. 지옥인데다가, 그것이 진화돼서 또 인간까지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헤매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고, 좋은 행동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사대성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 일이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나쁜 일도 놓고 좋은 일도 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 나쁜 일, 좋은 일을 막론하고, 그 생사윤회 속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철 좋은 일을 해서 그 선덕으로 인해서 좋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일도 하게 되니까, 또 짓게 되니까 아예 '생사윤회 속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런 뜻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나도 길잡이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철 요렇게, 한 생을 요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 A18면으로 계속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 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말려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

☞ A17면에서 계속

해를 다니면서 공부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내가 공부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마는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업보가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됐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빗나가든 빗나가지 않든 '무조건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맡겨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쉴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됐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 오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눈물이 뼈에 사무쳐 나오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 어찌 그렇게 과거로부터,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 가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주인공 원망할 수도 없지.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아, 태양이 '너 잘못하고, 너 잘하고' 이런 거 말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이 속에서 눈물이 복받칩니다.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남인데,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질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四生)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디다. 뭐, 풍뎅이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연방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어느 때 어떻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사십구 년을 설하시면서도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한 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거든요. 지렁이 소굴에서는 지렁이가 높고 호랑이 소굴에서는 호랑이가 높고.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높은 거예요. 저마다 다 높고, 저마다 다 나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이러니, 따로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 줬다." 이럴 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걸로 표현해서 얘기해 드리죠? 줄과 줄, 전깃줄과 전깃줄, 전자와 전자라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모습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이 여기 와 닿을 때, 나도 간절한 마음이 함축이 돼서 가서 부딪치면 불만 번쩍 일어났지, 이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이럴 수도 없고 '내가 가르쳤다' 이럴 수도 없어요, 네? 저쪽 놈도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이쪽 놈과 저쪽 놈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반면에 '불만이 덩그마니, 밝게 광명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만 나올 수 있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하여간에 모두가, 99%는 부처니까. 중생을 끼고 다녀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의 불이다, 한마음의 광명이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육근(六根)이 어쩌니 육진(六塵)이 어쩌니 육식(六識)이 어쩌니 십팔계(十八界)가 어떠니,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와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신다면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러겠죠?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하고 또 따지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탓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소임 소임, 자기 잘하는 대로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되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하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이 태양과 이 산하대지는 그대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광명을 이루고 창조를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이럭하는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모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도 둘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가 둘이 겠습니까?

L.A.에서도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허허허…. 나이도 많이 든 백인이 말입니다, 리어카에다가 깡통, 병 이런 것만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뛰는데 다리가 아프고 지치니까 허덕허덕하면서 그걸 끌고 가요. 가다가 언덕에 이르니까 그냥 허덕허덕합디다. 그걸 보는 순간, '참, 세상에도 모두가 자기가 한 대로 저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왔구나!' 개미가 왜 개미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백인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개미들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뭐가 다릅니까?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버리면, 호랑이는 양쪽 팔다리를 모두 떼어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짐승들이 오는데 창자 먹는 놈이 있고 살 뜯어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뼈에 살 붙은 걸 떼어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차례차례로 그렇게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그렇게 뜯어 먹고 뼈다귀만 남으면 그 때는 개미 차례입니다. 그 뼈다귀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먹거든요. 그래 그 백인이 그럭하고 가는 거를 볼 때 개미 생각이 퍼뜩 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개미 좀 봐!' 하고요.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과거에 즐겼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사람 개미로서 저렇게 소임을 맡았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관해 봐라,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닥치면 아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곤 방방 뛰어요, 그냥. 나온 자리에다 다시 놔야 할 텐데, 내보낸 자리에다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딴 데다가 그냥 전부 갈아 놓고는 온통 팔팔 뛰니까 이건 더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돌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하하하…. 우리 이왕지사 이 자리에 앉았으니 질문도 하세요.

사회자 큰스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여독과 피로가 풀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큰스님 재밌지 않아요?

사회자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큰스님 왜요? 아, 청년 법우들도 있고 그런데 뭐….

사회자 다음 기회에 듣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명 깊은 법문 감사히 들었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이런 강제성이 어딨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아르헨티나로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날 L.A.에서 아주 피곤했어요. (대중 스님들을 보시며) 어디서 왔지? 아, 콜로라도에서. 콜로라도에서도 또 한참입니다, 거기가. 콜로라도에서 바로 와 가지고 설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드러누웠더니 애들이 영 가질 못하게 했습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까 아, 요게 꾀가 조금 납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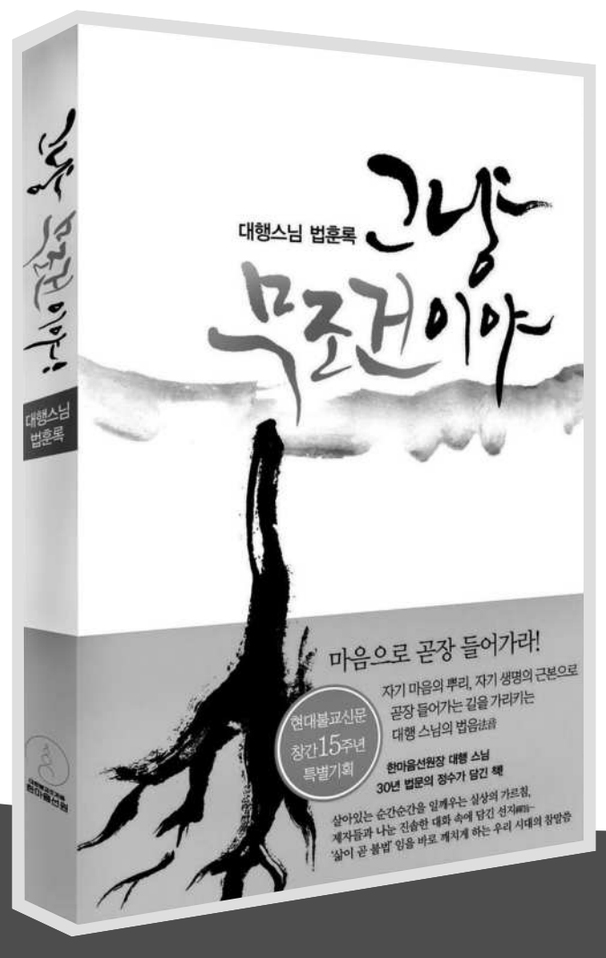
그래서 '아이, 이거 쟤들도 그만두라는데 나도 좀 그만 쉬어 볼까?' 이러고 있는데 아, "뜨르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지원 스님한테서. 전화로 "스님이 오실 줄 알고 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난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피로하고 뭐고, 어떤 것도, 하늘이 그냥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냥 와짝 제끼고선 일어나지는 기분이에요. '가야지!' 아, 그러니까 일어나집디다. 그런 거 뭐, 아랑곳없어요. 이 세상이 다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좀 열정 있게 해 보십시오. 그러고선 나한테 "아이고, 피로하시니까, 피로하시니까 그냥 쉬십시오." 이러는데 아니,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뒤로 돌아선다고 죽지 않나요? 전쟁에 나갔으면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이래 죽어도 한세상, 저래 죽어도 한세상이에요. 하하하…. 그렇게 좀 더 빠릿빠릿하고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부모의 빚을 갚아서 건질 수도 없고, 아래로 뿌려 놓은 자식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하고 결사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회자 감명 깊은 법문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2년 8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훌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금수저보다 귀한 보살정신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세일전자 화재서 동료 구하고 희생
2016년 서교동 빌라 방화 사건에서
집집마다 화재 알렸던 故 안치범 씨
자기희생 정신을 기려 '義人' 존경

그들은 금수저 아닌 '金마음'을 가져
금보다 귀한 自利利他 보살행 실천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마음'
자타불이의 대승불교 보살행 확산되길

얼마 전 인천 남동공단의 세일전자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사망하였다. 그 중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동료를 구하려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다.

민 모 과장(35)은 화재를 처음 목격했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위험에 빠진 직원들을 대피시키려고 "불이야"라고 외치며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본인은 끝내 다시 나오지 못했다.

김 모 씨(51 · 여)도 탈출하는 대신 동료들을 돕기로 선택했다. 김 씨는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동료들에게 화재를 알리기 위해 각 제품검사실을 돌며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러다 본인은 결국 희생된 것이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 서교동 빌라에 방화가 있었을 때, 故 안치범 씨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5층 빌라 전체에 화재를 알렸다. 덕분에 빌라 주민 20여 명 모두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안 씨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는 28세 성우지망생이었다. 한국성우협회는 생전에 성우를 꿈꿨던 안 씨를 명예회원으로 인증하는 패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협회 측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며 안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남에게 "위험해요. 어서 피하세요"하고 알려주는 음성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음성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탐 · 진 · 치가 들끓고, 갑질과 악행에 대한 소식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재산이 많거나 고학력이거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이 분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의인(義人)이라고 불리고 있다.

누구든지 고통은 싫어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다. 위급한 순간에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분들은 금수저는 아닐지 몰라도 '금마음', 남을 생각하는 금보다 귀한 마음을 실천했다.

영화 〈신과 함께 2-인과 연〉에서는 망자 중 귀인(貴人)을 따로 분류한다. 여기서도 귀인은 신분이 높거나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 이 모두는 바로 요익중생하는 대승보살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도 소리없이 남을 생각하는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살아갈 만하다.

불자로서 자신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목숨 걸고 희생까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하물며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만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옥행 티켓은 빨리 취소할수록 좋다.

우리는 본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가진 부처님이다. 대행 스님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를 고집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남과 한마음이 된다. 나와 남이 공심공체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이득을 내려놓고 남을 생각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한 귀인, 진짜 VIP인 것이다.

불자 수가 감소하는 요즘, 자타불이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마음과 행이 한국불교에 가득하기를 발원한다.



기자칼럼

불교는 저작권 사각지대인가

신성민 취재부 부장

지난 8월 초 '다워니 스님' 카툰을 그리는 서주 스님의 페이스북에 2장의 일러스트와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른쪽이 제 그림이고, 왼쪽은 다른 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작권을 밝히는 Dawonyee도 지우고 주변에 채색을 하는 등의 편집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작가들의 저작권을 존중해주시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작가에게 사용가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먼저고 불가한 경우라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네티즌으로 보이는 도용자는 서주 스님의 그림에 서명도 지우고 자기 그림인양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젓이 게재한 모양이다.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지우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사례는 불교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한 불화 작가는 불교상품제작사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사례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좌시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작가들의 작품이 좋아서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들의 작품을 홍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작가가 고소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간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 다음 · 레진 코믹스 등 웹툰업계가 연대해 최근 무단 웹툰 개제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또한 한국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2016년 2370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가 징수됐다.

이 같이 사회적으로 저작권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찬불가 악보 저작권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진 도용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다. 불교계 주요 언론 뉴스 콘텐츠를 소규모 불교 인터넷 언론에서 무단으로 전제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본지 워터마크(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가 붙어있음에도 버젓이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가지는 법적 권리다. 작가들은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대신 적절한 값을 지불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생활과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불교에는 법보시라는 문화가 있다. 남에게 부처의 가르침이나 불서(佛書)를 베푸는 것은 공덕을 짓는 숭고한 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작가들을 착취하는 문화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려면 그에 걸 맞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 형성도 이루지 않고 불교문화콘텐츠 발전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유 시는 출처를, 사용할 땐 제 값을 내자. 그래야 불교 문화가 산다.

社說

나란다 축제 10주년에 부쳐

불교계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 '나란다 축제'가 10회를 맞는다.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출발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나란다 축제는 불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 청소년들도 대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2012년부터 대회 명칭을 나란다 축제로 확대개편해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게 했다. 일반부와 군장병, 사관생도까지 참여했다. 최근에는 3000명이 넘는 군장병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등 대회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10만명이 행사에 참가했고, 장학금도 무려 8억원이 넘게 지원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나란다축제의 성공과 별개로 불교계의 다른 어린이축제가 미미하단 점이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진행하는 천진불 한마당, 불교레크레이션협회가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하는 어린이영문자타 카암송대회 등이 있지만 각기 운영주체의 축소, 주최측의 재정적 어려움, 참가사찰의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란다축제의 발전 이면에는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온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노력이 있었다. 확고한 주최측의 의지와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될 때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교구본사들이 지역 봉축행사, 개산대재, 산사음악회처럼 별도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를 마련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경주해야 한다. 지역의 불자들이 함께 연대해 어린이 청소년을 불교로 이끄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이미 부산 등 몇몇 지역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이제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새장을 열 때다.

재생에너지 사업, 유휴지 살린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사찰 유휴토지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유휴토지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불교계에 공익적인 사회 기여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9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환경 훼손과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종단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개별 사찰들이 각자 검토함에 따라 확산되지 못했다. 특히 사찰 소유의 유휴토지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인데다 대단위보다는 소단위 토지들을 여럿 갖고 있어 태양광패널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열악한 사찰재정도 문제였다.

조계종은 협약에 따라 부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계약체결 시 자본 투자, 시공과 운용 등을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제공받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가람을 추구해온 한국불교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유휴토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에 보다 앞장서는 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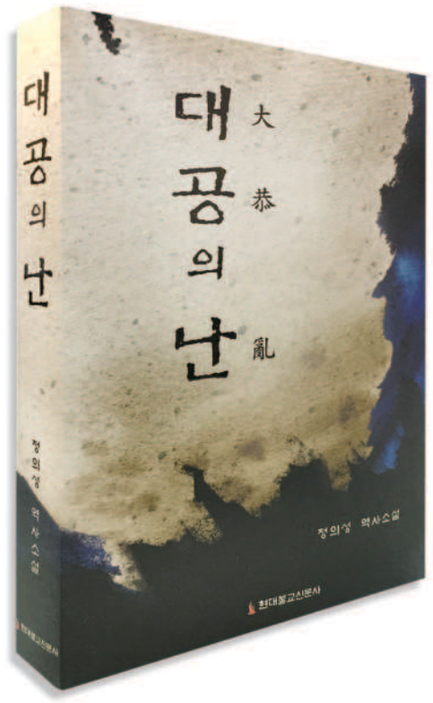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블루클리프 사원임을 알리는 석판과 멀리 보이는 명상홀의 모습. 석판 글씨는 틱낫한 스님이 썼다고 한다. 작은 시골마을 같은 풍경에 생활속 수행 실천이 눈길을 끌었다.

마음수행 '생활화'를 선도하다

특집기획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샤린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뉴욕=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리말로 벽암선원(碧巖禪院)인 블루클리프 사원(BlueCliff Monastery)은 베트남 스님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이 창안한 미국의 마음챙김연구센터이자 수도원이다.

블루클리프 사원은 뉴욕시에서 2시간 거리의 캣츠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7월 15일 젠마운틴사원에서 출발한 답사단은 같은 지역의 블루클리프 사원으로 향했다. 숲길 속으로 난 도로를 통과해 50분 남짓 이동하자 블루클리프 사원이 나타났다.

블루클리프 사원은 1997년 비구 스님들의 거주지인 메이플 포레스트 사원이 버몬트 주 우드스탁에 새워졌고, 1998년 비구니 스님들의 거주지인 그린 마운틴 다르마센터가 버몬트 주의 하트랜드에 세워진 이후 2007년 5월 두 사원이 하나로 통합 이전되며 탄생했다.

시골 전원 마을의 인상 받아

블루클리프 사원의 첫 인상은 '사원이라기 보다는 작은 마을 같다'는 것이었다. 식당 건물은 영락없는 미국식 타운하우스였다.

주변 환경 또한 일반적인 미국 가정집과 비슷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루클리프 사원은 미국 내 다른 대부분의 명상센터, 선사원과 같이 1939년부터 운영중인 가족 소유의 별장을 인수해, 개조하며 탄생했다. 입구의 건물 또한 '블루클리프'란 플래카드가 없으면 사원의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답사단은 길을 사이에 두고 명상홀이 위치한 곳으로 향했다. 양측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숲속에는 수행하는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어 비로소 사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군데군데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었다. 정작 명상홀 내에는 작은 부처님상이 모셔져 한국불교의 사찰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에게 거대한 부처님상은 필요치 않아보였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수행하는 부처님 상이 더욱 크게 조성된 것으로 봐서는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드러났다.

블루클리프 사원의 수행자들은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Welcome home'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마을에서의 동네 사람들, 혹은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 블루클리프 사원은 집과 같았다. 해먹에 누워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사람, 잔디를 깎는 스님, 요리를 준비하는 할머니와 이를 돕는 스님들의 모습이 이채로웠다.

여기서 수행자들은 서로를 형제로 부르고, 일할 때나 이동할 때나 마음챙김 수행을 한다고 들었다. 스님들은 손수 공양에 쓰는 야채밭을 가꾸고 조심히 삽질을 하며 마음챙김 수행을 한다. 수행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으면 명상센터가 아닌 더욱 더 시골 마을과도 같아진다.

답사단의 방문 당시 틱낫한 스님이 머물렀던 숙소를 방문했다. 1층에는 이미 다른 수행자가 머물고 있었다. 반바지 차림으로 무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 미국에서

이번에 답사가 진행된 블루클리프 사원은 틱낫한 스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틱낫한 스님은 세계 4대 생불로 꼽히는 선지식으로 베트남전 당시 세계를 돌며 반전 연설과 법회를 열었다. 1973년 프랑스로 장기 망명 후 1982년 플럼빌리지를 창설하며 세계인들에게 마음수행을 본격적으로 전파했다.

틱낫한 스님이 설립한 접현종(Order of Interbeing)은 전통적인 수직구조의 위계보다 평등한 수평구조의 소통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함께 수행하며,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위상에도 차이가 없다. 주지직도 직분을 나타낼 뿐으로 청소 및 장보기 등 사원 소임 중 하나를 맡게 된다.



웨삭데이에 법회를 보는 블루클리프 사원 불자들.

틱낫한 스님은 14개 지침으로 대중들을 이끈다. 이 14개 지침은 크게 개방성, 견해에 집착치 않음, 사고의 자유, 고통을 알아차림, 단순하고 건강한 삶, 화다스리기,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기, 공동체와 의사소통, 진실되고 사랑이 가득한 말하기, 승가공동체의 보호, 바른 생계활동, 생명에 대한 경의, 관용, 바른 행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플럼빌리지를 비롯해 블루클리프 등 공동체에서는 30가지 수행법을 전하고 있다. 현재의 지식이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 생각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음챙김의 '생활화' 눈길

블루클리프 사원에서는 종을 많이 사용한다. 안거기간 중에는 15분 간격으로 종이 울린다.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돌아온다.

종소리뿐만 아니라 전화벨이 울릴 때도 마찬가지다.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호흡에 마음을 집중한다. 벨이 3번 울리면 전화를 받는다. 브루클리프 사원에서는 '빨리 빨리' 등 재촉이 없다.

블루클리프 사원 측에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은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접시를 씻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사원에서는 25개의 생활 속 수행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 살기 △종소리에 마음챙기기 △숨쉬기 △일어나기 △좌선 △함께 식사하기 △쉬기 △몸으로 실천하기 △깨달음을 공유하기 △일하며 명상하기 △부엌일하기 △묵언하기 △홀로 수행하기 △지구를 만지기 △게송을 읊기 △새롭게 시작하기 △깊은 집중하기 △하루는 게으르게 보내기 △다른 사람의 깨달음 경청하기 △차 마시며 명상하기 △화를 돌보기 등이다. 구체적인 설명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전하고 있다. 개별 상황마다 마음챙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기에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블루클리프 사원을 처음 찾는 이들은 하루에 묵언을 몇 시간 씩 실천하고 특히 한 마디 말도 없이 묵언하며 식사하는 것에 당황하곤 한다고 말한다.

이는 마음챙김 공양(Mindful Eating)으로 음식을 먹을 때 허기와 식욕을 채우기 위해 먹기 보다는 입안의 음식의 감각을 느끼고, 우리 몸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사과를 먹을 때는 사과를 먹고 있음을 충분히 자각하고, 오직 사과만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삶의 잡념을 버리고 사과에만 집중해 보라는 것이다. 사과를 씹을 때 생각을 옮겨 사과가 있던 자리, 사과를 키운 농부의 손길, 그리고 사과나무가 뿌리를 내린 흙, 이와 연결된 햇빛과 바람, 대자연까지 생각해본다.

"식사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식당을 향한다. 고요한 식당에서 먹을 만큼 음식을 그릇에 담는다. 식탁에 앉는다. 세 번의 종소리가 울린다. 약 20분 동안 말없이 고요히 먹는다. 몸과 마음의 양분이 될 음식을 온전히 느낀다. 두 번의 종소리가 울리면, 동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음식을 더 가져와 먹거나 식사를 마친다."

위는 〈뉴욕타임즈〉가 묘사한 마음챙김 공양이다. 블루클리프 사원에서의 수행은 미국 사회에서의 주목을 받았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종사원의 규율–추방과 벌칙

B5
문화
황두현 초대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B6
학술 · 문화재
2018 가을학기 박사학위논문 〈中〉

'틱낫한 스님은?'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틱낫한 스님은 1942년 불교에 입문했다. 스님은 참여불교운동을 주창하고 민중에게 다가가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다. 베트남 전 당시 난민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사회청년봉사학교를 세웠다. 틱낫한 스님은 이후 사회 변화를 위한 개인의 내적 변혁에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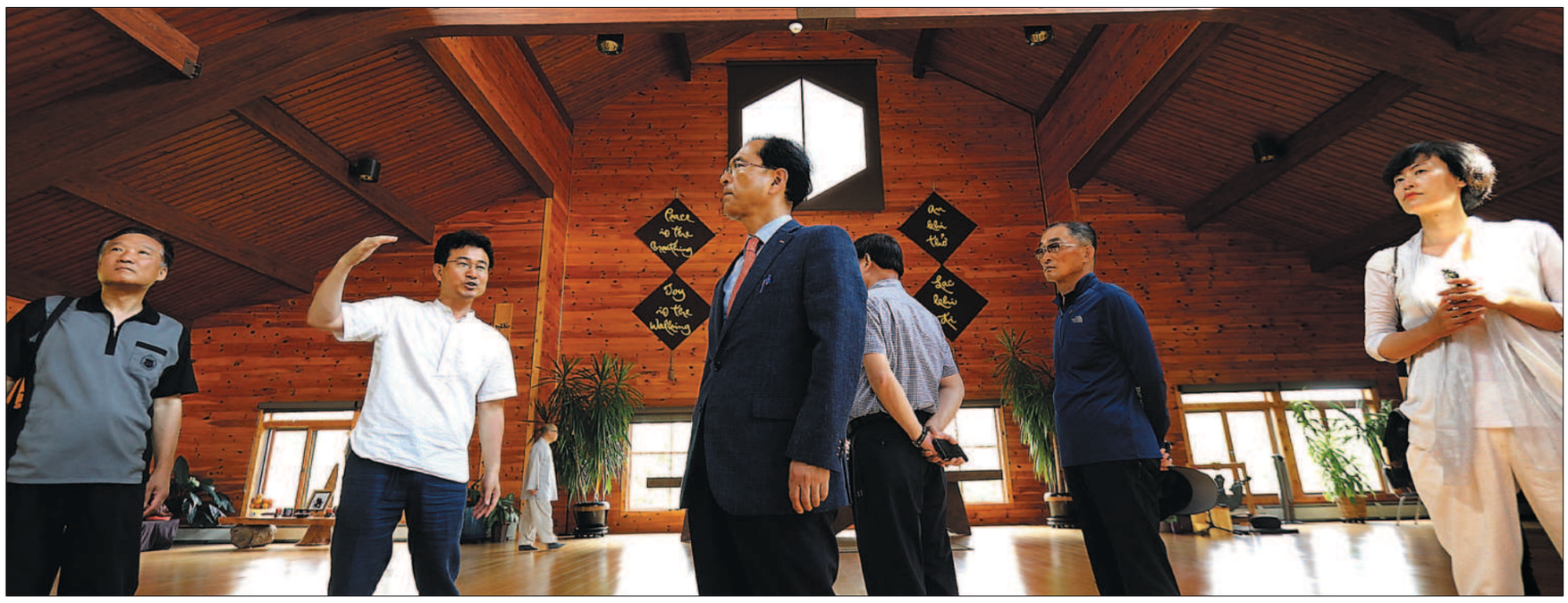
1961년 틱낫한 스님은 프린스턴 대에서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 첫 발을 디뎠으며, 1962년 컬럼비아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이후 1960년대 스님은 불교의 비폭력과 자비 사상 등을 통한 청소년 교육 및 사회봉사 학교를 설립하고 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베트남에서 반전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서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쟁 반대와 함께 평화의 중요성을 알린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한 스님은 1975년 파리 근처에 수행공동체를 설립했으며 1982년에는 프랑스 남서부에 플럼 빌리지로 이를 옮긴다.

플럼 빌리지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불교사원으로 성장했고, 매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해 마음챙김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미국과 아시아, 유럽에 6개 사원과 수십 개의 실천센터를 설립했으며, 'Sanghas'로 알려진 1000개 이상의 지역수행공동체를 창립했다. 틱낫한 스님은 수만 명의 평신도 학생들과 함께 학교, 직장, 그리고 교도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답사단이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명상홀을 둘러보고 있다. 작은 불상과 불단이 없는 구조에서 수행중심 · 수평적 구조를 느낄 수 있었다.

출재가 평등… 공생공존 불교수행 공동체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 블루클리프사원

B1면에서 계속

수평적 승가구조, 젊은 승려 육성

사원 내 소임도 평등하게 배분

구체적 마음챙김 방편 전해

캠핑·통근 등 다양한 방법 '인기'

〈뉴욕타임즈〉는 블루클리프 사원의 마음챙김 공양을 특집기사로 다루며 불교의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음식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먹느냐가 또 하나의 마음수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블루클리프 사원은 인터넷을 통해서는 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게송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생활 속 수행 방편으로 제시된 '일어나기'의 경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미소 짓는다. 24시간의 새로운 시간들이 내 앞에 있다. 나는 매순간마다 완전히 살며 자비의 눈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겠다고 서원한다' 등이다.

모든 일은 출재가 구분없이 한다

블루클리프 사원에서는 철저히 출재가의 구분없이 일하며 운영함을 알 수 있었다. 답사단의 방문에서도 한 스님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또 다른 수행자는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블루클리프 사원의 경우 4시 기공운동을 시작으로 5시 좌선 및 예불, 경행, 아침 7시 30분 공양 이후 그룹 수행과 법문, 토론 등이 이어진다.

블루클리프 사원은 일반적으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번 법회를 연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법회서는 상주하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틱낫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보기도 한다. 목요일 10시 30분에는 다르마토크가 진행되며, 점심 공양 후 오후 1시 30분에는 서점에서의 독서 시간도 배정된다. 오후 3시부터는 다르마 공유 및 워크숍 등이 열린다. 일요일에는 12시 다섯 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승가에서의 위계 또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블루클리프 사원에는 현재 12명의 비구 스님, 19명의 비구니 스님 등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20~30대 초반으로 우리나라 출가자의 고령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5년간 승가교육을 받으면 계를 받고 법랍과 상관없이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고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블루클리프 사원을 비롯한 접현종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혼자서도 수행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 대부분 기부로 충당

블루클리프 사원의 경우 앞선 젠마운틴 사원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사원들이 숙식을 포함해 1박당 250~300달러의 비용을 받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금액인 60~110달러의 비용(기숙사)을 받고 있다. 재밌는 점은 캠핑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불교로 바꿔 보자면, 사찰 앞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며 사찰에서 수행을 하는 격이다.

캠핑을 하거나 통근을 하는 경우 40~80달러의 비용을 받고 있었고, 여기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50%, 혹은 무료로 입방이 가능했다. 비교적 낮은 금액을 받기에 대부분의 재정을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센터에서 프랑스 플럼빌리지까지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놨다.


법회를 하는 블루클리프 스님들.


매주 두차례 열리는 다르마토크 모습.


미국 가정집을 개조한 사원 가옥.


메인 건물인 명상홀 전경.

블루클리프 사원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지만 2008년 지어진 명상홀은 그나마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곳이었다.

최대 800명이 수용가능한 명상홀은 나무의 결을 살린 디자인이 돋보였다. 블루클리프 사원이 자리한 캣츠킬 지역은 다양한 나라의 불교 사원들이 밀집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으로 아름답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의 질감을 살리니 마치 숲속에 있는 듯했다. 홀 가운데 앉으니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블루클리프 사원 측은 현재는 여러 주거시설이 개조되고 겨울철에는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객실과 새로운 식당 및 공동 구역을 추가하기 위한 불사가 한창이라고 전했다.

사상이 생활 속으로 체화된 곳

틱낫한 스님의 사상은 '지금 여기에서'로 볼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은 지금 현재의 순간의 경이에 만족하며 마음의 평화를 살펴보라고 말한다. 블루클리프 사원은 이러한 사상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다.

틱낫한 스님은 미국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 속에 심화된 인간 소외, 내면의 빈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금은 느리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충만함을 이룰 수 있게 했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직 세계적인 명성은 얻지 못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공생공존하는 불교 수행 공동체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점은 아직 부족하다. 직장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생활의 현장에서 잠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변화가 일기를 기대하며 블루클리프 사원의 문을 나섰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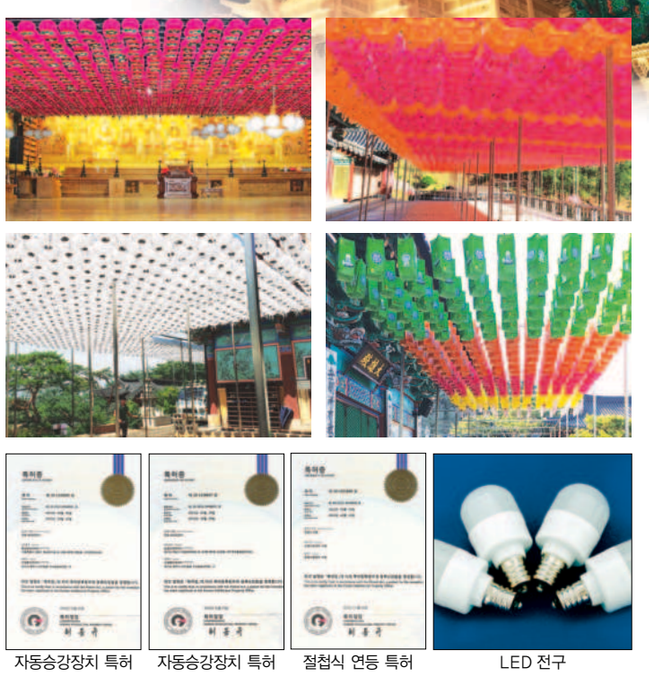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승복 벗겨 쪽문으로 추방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⑯ 선종사원의 규율–추방과 벌칙



그림 · 김홍인

1. 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을 범하면 추방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율장에 의거하여 '4바라이죄(四波羅夷罪, 極惡의 의미)' 즉 '사중죄(四重罪)'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고 승단에서 추방했다. 오늘날 멸빈과 같다. 승려로서의 생명(자격)이 박탈되고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두(斷頭, 목을 끊음)'라고 한다. 사회법으로 말하면 사형과 같은 것이다.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화합을 크게 해치는 자, 범죄자, 도첩이 없는 가짜승, 사바라이죄에 해당하는 불살생(不殺生) · 불투도(不偸盜) · 불사음(不邪淫) · 불망어(不妄語) 등 중요한 계율을 범할 경우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복을 벗기고 곤장을 쳐서 추방했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10권(부록)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에는 추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혹 규칙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대중 앞에서 주장자(拄杖子)로 치도록 하라. 가사와 발우 등 도구(道具) 일체를 빼앗아서 불태워 버리고 편문(偏門, 쪽문)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치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중계(重戒, 四重罪 : 殺盜婬妄 사바라이)를 범하면 의발(衣鉢)을 불태워 버리고, 대중을 집합시켜라. 포박하여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산등(山藤, 칡나무 매질)으로 매질하라. 산등으로 치는 것은 오로지 치욕을 드러나게 함이니, 구빈(驅擯, 곤장으로 쳐서 축출함)하여 편문(偏門)으로 내보내라."(〈선원청규〉 10권, '百丈規繩頌'. "或有所犯, 即須集衆, 以拄杖杖之. 焚燒道具, 逐從偏門而出者, 示恥辱也. 犯重焚衣鉢, 應當集衆人, 山藤聊示恥, 驅擯出偏門."(신찬속장경 63권, p.550c)

범계자(犯戒者)를 추방할 때는 그 방법이 매우 치욕적이다. 공개적으로 옷을 벗기고 곤장을 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추방을 당하여 나갈 때도 정문인 산문을 이용할 수가 없다. 편문(偏門) 즉 쪽문으로 나가야 한다. 산문은 선종사원의 정문으로서 승려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문(偏門)은 추방당하는 자에게는 '모멸의 문'이요, '치욕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후속적인 조치로서 범계(犯戒)한 사실과 법명, 이름, 사자(師資, 스승의 이름) 관계 등 인적사항을 적어서 여러 사찰에 통문을 보내어 알린다. 통문을 받은 사찰로서는 객승들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죄를 범하여 멸빈 결정을 받고 해당 사원에서 추방을 당하면 다른 사찰에 가서 살 수도 없다. 불교 승가에서는 완전히 사장(死藏)된다. 환속하여 살 수 밖에 없다.

사바라이 다음으로 중요한 죄는 승잔죄(僧殘罪)이다. '승잔(僧殘)'이란 추방하지는 않고 승단에 남겨 둔다는 뜻으로 바라이보다는 가벼운 죄다. 승잔(僧殘)에는 약 13~1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죄를 범하면 묵빈(默擯) 벌칙을 내린다. 묵빈이란 '침묵으로 빈척하다'는 뜻인데, 대중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과 일체 왕래도 말도 하지 않는다. 그가 말을 걸어 와도 대중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요즘말로 하면 '왕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얼마동안 왕따를 시켜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것인데, 참회 · 반성하지 않으면 그 역시 추방시켜 버린다.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묵빈 대신 곤장을 쳤는데, 곤장을 치는 것은 인도에도 있었지만 중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종사원의 규칙과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 '청규(淸規)'이다. 그러나 청규에는 추방이나 벌칙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은 없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인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별도의 항목은 없고, '소참(小參)' 편과 규율 담당인 '유나(維那)' 편, 그리고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백장규승송' 등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총림교정청규총요(함순청규)〉 · 〈입중수지〉 · 〈선림비용청규〉 등에도 벌칙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다. 다만 〈칙수백장청규〉에는 '숙중(肅衆)' 편을 두어서 추방과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역시 개략적이다. 이것은 〈사분율〉 · 〈범망경보살계본〉 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추방을 〈칙수백장청규〉 등에서는 '빈출(擯出, 물리쳐 내쫓음)', '빈벌(擯罰, 축출 벌칙)', '삭적(削籍, 승적에서 삭제함)', '멸빈(滅擯)', '구빈(驅擯, 내몰아쫓음)', '출원(出院, 선원에서 축출함)'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또 곤장으로 쳐서 내쫓는다고 하여 '추빈(箠擯)'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적에는 '체탈도첩(剃奪度牒, 도첩을 빼앗아 버림)' 또는 '산문출송(山門黜送, 절에서 내쫓다)'이라고 했다. 도첩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출가허락장, 공인장(公認狀)으로 승려증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도첩이 있으면 군정(軍丁)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남발하거나 몰래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훗날 크게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있었다. 도첩제도는 중국에서는 당대(唐代)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四重罪… 승적 박탈 추방
僧殘罪… 묵빈, 참회 기회

조선 때에는 억불책(抑佛策)의 하나로 이 제도를 강화하였고, 1911년 조선사찰령(朝鮮寺刹令) 〈사찰령시행규칙(寺刹令施行規則)〉에 의하여 관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31본산(本山) 주지가 직접 발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첩제도는 없어졌고 각 종단에서 발행하는 승려증으로 대체되었다.

산문출송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승복을 벗기고 속복을 입혀서 일주문 밖으로 추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제시대 때에는 '명고축출(鳴鼓逐出)'이라고 하여 당사자의 등(背)에 북을 지워서 마을 밖까지 북을 두드리면서 내쫓는 경우도 있었다.

〈칙수백장청규〉 주지 〈숙중(肅衆)〉 편에는 사바라이죄 외에도 "신분을 사칭하고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혹 신분을 사칭[假號, 가짜 승려]하고 외모를 가장[竊形, 승복을 입고서]하여 대중 속에 섞여서 소란[喧擾]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유나는 마땅히 당사자를 검거하여 입방명단에서 삭제하고 선원에서 축출해야 한다. 청중(淸衆)의 평안(平安)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혹 범(犯, 犯戒, 규율 위반 등)한 일이 있으면 주장으로 곤장을 치고 대중을 모아 의발과 도구를 불태우고, 편문(偏門, 쪽문)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치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네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대중들을 오염으로부터 막고 공경과 신뢰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승적에서 추방하고 부처님 제도를 지키기 위함이고, 셋째는 이로 인하여 공문(公門, 관아)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막고 옥송(獄訟)을 덜게 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총림의 추한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칙수백장청규〉, 주지 '肅衆篇'. "有或假號竊邢混于淸衆, 別致喧撓之事, 即當維那撿舉, 抽下本位掛搭, 擯令出院者, 貴安淸衆也. 或彼有所犯, 即以拄杖杖之, 集衆燒衣鉢道具. 遣逐偏門而出者, 示恥辱也. 詳此一條制有四益. 一不汚衆生, 恭敬故. 二不毁僧形, 循佛制故. 三不擾公門, 省獄訟故. 四不泄於外,護宗綱故." (대정장 48권, p.1121e).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에는 사바라이 외에 몇 가지를 더 열거하고 있다. 즉 주색(酒色)을 한 자, 싸움(鬪爭)한 자, 규율을 문란하게 한 자(汚衆), 소란(喧亂者) 등을 범한 자, 시비를 일으켜서 화합을 깨뜨린 자는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 가운데 혹 남의 물건을 훔친 자나 주색(酒色)질을 하는 자나 투쟁(鬪爭, 싸움질을 하는 자), 오중(汚衆, 규율을 문란하게 한자), 훤란(喧亂, 총림을 시끄럽게 한 자) 등 계율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으면 대중을 모아 놓고 축출 · 퇴원(退院, 추방)시켜라. 재물을 도둑질하고 투쟁하며 술과 여색을 가까이하여 승가의 규율을 더럽히면 속히 추방하여 대중으로부터 떠나게 하라. 머물게 하면 대중을 부패하게 하리라."(장로종색, 〈선원청규〉 10권, '百丈規繩頌'. "一聖衆內, 或有盜竊酒色及鬥諍汚衆喧亂不律等事, 皆集衆棄逐出院. 不從即聞公, 盜財並鬥 諍, 酒色汚僧倫, 速遣離淸衆, 容留即敗群." 신찬속장경 63권, p.552b).

또 가짜 승려도 추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혹은 신분을 사칭(假號)하고, 외모를 가장(竊形)하여 청중 속에 섞이며, 훤요(喧擾, 소란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하는 일이 있으면, 유나(維那)는 해당 승려의 자리와 소지품을 점검하여 선원에서 내쫓으라. (……) 떠나가서는 머리를 돌리지 말라(가짜승은 다시는 입산하지 말라는 것).

또 시비(是非)를 일으켜서 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림의 청중(淸衆, 대중)은 주지가 산문을 장악(掌握, 사중의 일을 집행하는 것이)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중을 따라 일을 하고 아침과 점심 공양 외에 마땅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저마다 분업(分業, 맡은 소임)을 지키며 덕을 쌓고 도(道)를 융성하게 하여 총림을 빛나게 하여야 한다. 자기 일이 아닌데 간섭하며 함부로 일을 만들며, 시비(是非)를 부채질하여 대중을 어지럽혀서 안정을 해치는 자는 총림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라."

추방이나 축출을 집행할 때는 규율 담당자인 유나가 총 지휘, 담당하는데,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범법(犯法), 범계(犯戒) 사실이 드러나면 유나는 그 사실을 먼저 주지에게 보고하고, 그런 다음 대중들을 동원하여 당사자를 검거한다. 증인이 있고 당사자를 조사하여 범죄 사실이 틀림없으면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복을 벗기고 곤장을 친다. 그리고 가사와 발우 등 도구 일체를 불태워 버리고 산문 밖으로 축출한다.

추방할 때는 도첩은 물론이고 수계첩과 면정유(免丁由, 부역, 병력, 세금 면제증) 등 증명서를 모두 압수한다. 따라서 그에게 주어졌던 부역, 병역 등 특혜도 멸빈과 동시에 박탈한다. 만일 축출된 후에 승복을 입고 다니다가 관아의 나졸들에게 검문당하면 그대로 포박하여 곤장을 쳐서 노역장으로 보낸다.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곤장을 쳐서 추방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주어서 다시는 총림 부근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총림 전체가 흔들리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 중죄(重罪)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추방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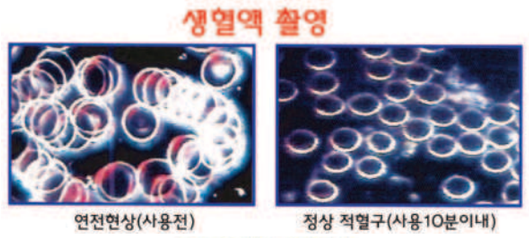
2. 경범죄에 대한 벌칙

사바라이나 승잔이 아니고 가벼운 계율을 범한 경범(輕犯)이 있다. 소소한 규칙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리는 벌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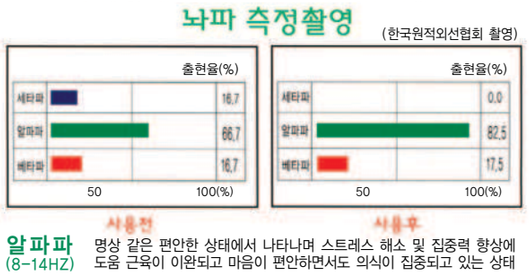
경범죄에 대한 벌칙은 벌전(罰錢) · 벌향(罰香) · 벌유(罰油) · 벌차(罰茶) · 108참회 등이 있다. 벌전(罰錢)은 오늘날로 말하면 벌금형인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벌금을 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벌향(罰香)은 불전(佛殿)에 올리는 향(香) 대금을 내는 벌칙이다. 벌유(罰油)는 불전(佛殿)이나 장명등을 밝히는 등유(燈油) 대금을 내는 벌칙이다. 벌차(罰茶)는 대중들이 마시는 차를 사는 대금을 내는 벌칙이다. 벌전 · 벌향 · 벌유 · 벌차의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재치 있는 처리 방법이다. 그리고 소소한 계를 범했을 때 108번 참회를 시키는 벌칙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회 방식이다. 좋은 참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사 대표〉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노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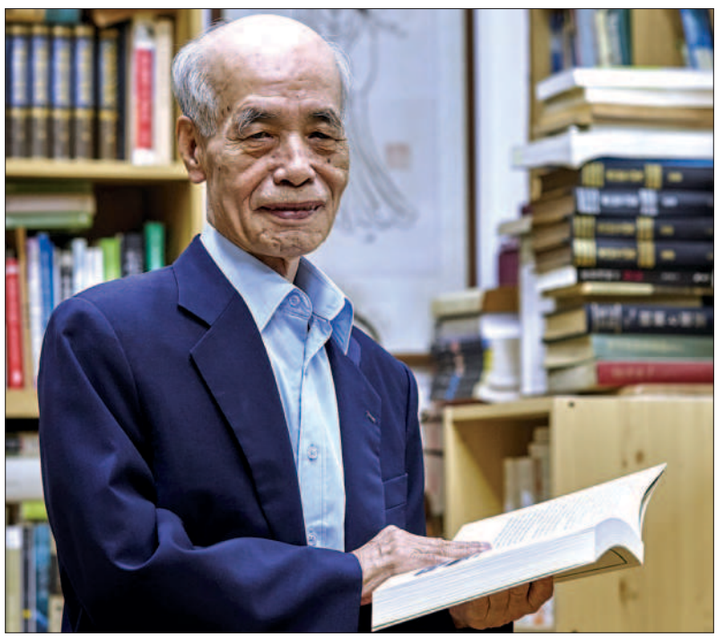
이번주 신간은… **〈스님의 남자친구〉** 글 일광 스님/그림 손정은/불교신문사 펴냄/1만원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일광 스님은 올해부터 복지관 어르신 대상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펴낸 산문집 〈스님의 남자친구〉는 대부분 스님이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다. 그 분들이 걸어온 빛바랜 삶이 스님과의 인연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사연들이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조물조물 무쳐 냈다는 저자의 말처럼 소박하고 따스한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7 ~ 8/23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월리엄 하트	김영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바른 믿음의 불교	성엄선사	탐구사
4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9	열반경 역해 (전3권)	이상규	해조음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스님의 남자친구	일광스님	불교신문사

우리는 '왜' 불교사를 읽어야 할까?



"불교가 국가 통치 시스템으로 작동한 삼국시대부터 신군부에 의한 수모를 겪었던 격동의 1980년대까지 한국불교사의 전반을 조망한 새로운 역사 교양서"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

이이화 지음/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역사를 가장 쉽게 풀어내는 재야학자' 이이화의 저서이다. 저자는 우리 불교사를 한국사 전체의 틀에서 통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특유의 이야기체로 풀어낸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 불교사를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교사를 읽어야 할까?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문화와 사상의 측면은 물론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위치를 점령해왔다. 불교가 걸어온 길은 한국사 번외의 맥락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책 전체에 포진해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저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흐름 속에서 불교사를 조명한다. 그래서 불교사의 명과 암을 꾸밈없이 서술해나간다.

한국사서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 하나가 있다. 바로 불교사이다. 불교는 고대 고구려에 처음 전래되어 백제, 신라, 가야에 전해졌고, 고려, 조선에 이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온다. 그러나 그동안의 불교사에 대한 시각은 주로 사상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져온 점,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으로 다뤄져왔다는 점으로 인해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불교가 지나온 유구한 세월을 이 책은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알지 못한 한국불교사의 민낯

불교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을 아주 일반적인 경우의 예 몇 가지로 살펴보자.

고대 삼국시대의 불교는 모든 계층이 섬기는 국가 종교이자 통치 이념으로 작동하며 강력한 왕권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일련의 흐름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고려시대 30여 년 동안 계속된 몽골과의 혹독한 전쟁에서도 민심을 모으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는 불교의 힘이 컸다. 그 증거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한편 억불의 기치 속에서도 왜란 당시 승군의 활동상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다. 특히 유정은 전쟁 이후에도 외교사절로 활동하며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를 송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조선 왕실에서 이러한 점을 높이 사 해남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하게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불교사에 이와 같이 빛나는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는 역사 속에서 부패와 정화를 반복했고, 존경과 핍박을 번갈아 받아왔으며, 시대에 참여하기도 시대를 외면하기도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빛에 가려져 알 수 없던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불교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한 가지는 고려 말 정치가들의 상소문서 살펴 볼 수 있다.

유학자인 당시 정치가들이 불교 배척 상소를 올린 것은 불교를 이단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상소에는 당시 불교계의 부패상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절에 하사된 토지의 도조나 노비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귀족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일반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등 상소문에 열거된 불교계의 부패상은 부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또한 고려의 어느 시기, 귀족 세력의 재산 도피처로 절이 이용되었다는 점 또한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 중 하나이다.

한편 불교가 핍박 받았던 것은 비단 조선시대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고려 무신정변으로 권력이 무신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종(敎宗) 세력들이 정권에 반기를 들게 되는데, 승려들의 무력 대항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고, 일련의 한 사건으로 인해 고려 희종은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기도 한다. 결국 오랜 세월 맥을 이어온 교종 세력은 무신정권에 의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불교사의 어두운 면 중 하나이다.

한국불교사의 거의 모든 장면 망라

지난 2002년 출간되어 현재는 절판된 〈역사 속의 한국불교〉를 수정 보완하고 새 옷을 입혀 다시 출간한 이 책은 역사 교양서 중 거의 유일하게 불교사를 조명한 도서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1,600여 년 역사를 편년체의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또한 불교의 명과 암을 꾸밈없이 제시하면서 한국사와 따로 떼어 놓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 역사의 실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 책서 발견돼야 할 또 다른 점은 저자가 그동안 모든 방면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온 신념이자 역사관이 전체 흐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대승불교의 '중생 제도'이다. 독자들은 그동안 민중의 삶에 깊은 애착을 지녀온 저자의 역사관으로부터 불교사 속의 명과 암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머리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과거를 반성하는 자료의 하나로 쓰였다"

이 말은 저자가 그동안 간직한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말이다. 화쟁과 총화 등 찬란한 정신 유산을 이어오며 지금까지도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한국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조언이다.

이제 불교사를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일 시간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근인(近因)을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따로 떼어 놓게 된다면 우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일에 이 책은 매우 유용한 교양서가 되어 줄 것이다.

세계적 영적 지도자 틱낫한 스님의 명상 주제 7가지



삶의 지혜

틱낫한 스님 지음/성안당 펴냄/1만 4800원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밤낮으로 이 질문들에 노출돼 있으며 현실서 우리는 호기심도 기쁨도 두려움도 없이 고령화와 죽음에 직면해 있다.

〈삶의 지혜〉에서 틱낫한 스님은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답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술을 보여준다.

틱낫한 스님은 2001년도에 〈화(Anger)〉라는 저서가 한국서 100만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명상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터이'는 베트남어로 스승을 칭하는 단어로 틱낫한은 '터이'로 불린다. 2017년에는 'Walk with me'라는 틱낫한 스님의 장편 다큐 필름이 촬영돼 미국서는 개봉됐는데 여기에 셜록의 주연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틱낫한 스님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조국을 떠나 프랑스 남서부에 명상 수행 공동체인 플럼빌리지를 건립한 바 있으며, 그가 설파하는 명상의 대명제인 'mindfulness('마음 다함')'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佛法의 본질 담은 에세이
우리 삶에 영적인 차원 제공

틱낫한 스님은 처음으로 우리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7가지 변형 명상을 제공한다. 이 책은 그가 2014년 11월 여든여덟이 되는 해 예기치 못한 뇌졸중이 닥쳐 갑자기 입원하기 전 '터이'의 가르침을 받은 수도승들이 편집에 참여했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토대로 이 7가지 명상을 통해 행복하고 평화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 가르침과 틱낫한 스님의 본질을 담은 에세이 〈삶의 지혜(The Art of Living)〉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차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인생을 피하거나 이 세상 바깥의 행복의 장소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과 이해와 사랑이 생겨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저자는 이것을 '마음 다함의 삶'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문체로 설명하는 틱낫한 스님의 마음 다함의 삶이란 무엇인지 책장을 열어 확인해 보자.

김주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운동화에 단청을?… 불교미술, 디자인이 되다

황두현 초대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갤러리 공유스페이스 선+, 9월 1~10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물에 불화문양 채색
사물에서 진리언어 찾아

단청과 불화가 디자인이 됐다.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 생활 속 사물이 단청과 불화 속의 불교문양과 만나 새로운 예술로 탄생했다. 불교미술작가 황두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갤러리 공유스페이스 선+에서 첫 초대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를 개최하고 새로운 불교미술을 선보인다.

단청과 불화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이다. 오랜 동안 불화와 단청작업을 통해 불화기법을 연구해온 황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에 불화문양을 입힌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오방색의 새로운 불교문양으로 탄생한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은 신선함을 넘어 '파격'에 가깝다. 새로운 패턴과 트렌드를 기대하게 하는 '디자인'이다. 아울러 그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가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당신의 부처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문장이 이번 전시의 제목이다. 황 작가는 자신의 작가노트에서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있으니 그를 따르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안의 진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불화를 배워 그리고 단청을 한지 17년이 지났다. 진리를 얘기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 불화 속 세상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이 엿보였다. 아마도 불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중략〉 세상 만물에 진리가 깃들어 있으니 불화의 언어로 그 아름다운 형용사로 일상을 그려보고자 생각했다. 비록 내 안에서 진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세상에는 이미 너무 예쁘고, 완벽하고, 좋은 것들로 넘쳐난다. 껍질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사슴벌레가 그렇고, 신혼부부의 물 끓이 전기 주전자도 완벽하게 착하다. 언젠가는 내 안에 진리도 그릴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고 했다. 황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진리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를 미술로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언어를 찾아 자신의 미술세계와 자신만의 부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미술세계와 대중에게 묻는다.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누구'가 아닌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황두현 作, 캔버스화, 30×42㎝


황두현 作, 목탁 32×41㎝

문화재수리기술자(1081호 단청), 문화재수리기능자(3801 화공, 8818호 모사공)인 황 작가는 10년 넘게 현장에서 전통을 지켜오다 근래에 자신의 미술세계를 펼치기 시작했다. 작가는 불화와 단청 등에 들어간 문양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불화기법들을 현대의 사물에 적용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주변의 사물들에 대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들은 BAF(Buddha Art Festival)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불교미술작가전에 초대되었으며, 이번 초대개인전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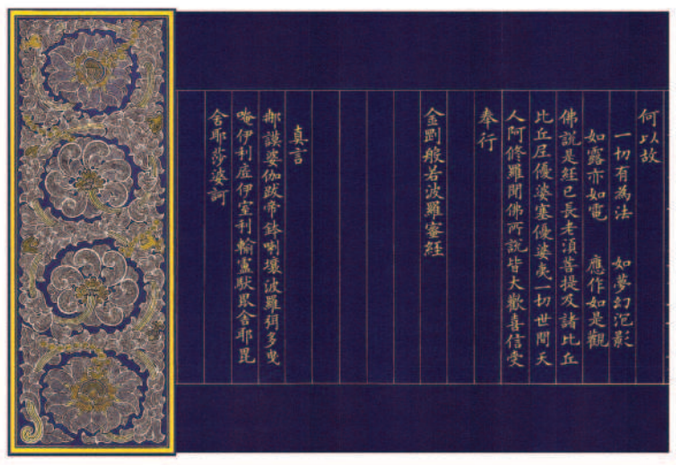
황두현 작가는 2007년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통미술공예학과(전통회화전공) 재학 중이며, 2017 제2회 현대 단청화전(용인 문화예술원), 2018 BAF 주목할 작가 초대전 "Buddha's Birthday!"(공유스페이스 선+),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Buddha Art Festival (SETEC), 2018 불화기법연구(공유스페이스 선+) 등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신라백지묵서화엄경 후 첫 사경결사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금강경 사경결사 회향전
갤러리 아리수 9.5~9.11

국내 첫 사경 결사 회향전이 열린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원장 김경호)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갤러리 아리수 제2전시장에서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결사 회향전을 개최한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사경왕조'라고 불릴 만큼 불교 전래국 중 최고의 성취를 이룬 고려의 사경을 전승하고, 선조들이 남긴 '사경'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조명,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서의 사경결사를 결성했다. 김경호 원장을 비롯해 강경애, 김명림, 박경빈, 박계준, 방태석, 송명숙, 윤경남, 이경자, 행오 스님, 허유지, 흥암스님 등 12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2018년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경결사 회향의 장으로, 동참자들의 결사 사경과 대표작 1점씩, 그리고 김경호 원장의 최신작을 포함해 총 30여 점의 〈금강경〉 사경 작품을 전시한다. 사경은 모두 체재와 양식, 기법 등에서 고려 전통사경의 정수를 계승하고 있다.


김경호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현재 전하는 유물과 기록으로 볼 때,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 된 사경 결사는 신라시대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754년부터 755년까지 19명의 대중과 함께 한 결사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완성한 것이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약칭으로 〈대반야바라밀경〉 600권 중 제577권 〈능단금강분〉으로 〈능단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선종과 교종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경전으로 현재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김경호 원장은 "사경 결사라 함은 불지(佛智)의 바다에 함께 들어감이요, 삼세제불보살의 무량한 은혜에 보답하는 선근 인연이며, 삼매의 용선을 띄워 반야바라밀을 향하는 투명한 항해요, 비로자나불의 광명 세계로 직입하는 보배로운 첩경이다"며 "바야흐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사경 결사를 맺어 금강의 지혜로써 사상(四相)을 깨부수는 여법함으로 5146개의 여의주와 35개의 마니주를 무념무상으로 꿰어 나감에 법의 그물에도 걸림이 없는 바람 같은 무위법을 증득하고자 함이다"고 결사의 의미와 취지를 밝혔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2013년 10월, 정부 지정 유일의 전통사경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 2010-5호) 외길 김경호의 사경 관련 저서 출간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출발했다. 현재까지 〈전통사경교본시리즈〉 5권과 〈전통사경교본사경본시리즈〉 2권, 〈외길 김경호 전통사경, 그 法古創新의 세계〉, 〈외길 김경호 사경작품 해제 시리즈 1 〈감지금니(天符經 · 三聖紀)〉, 〈천자문〉 등을 출간했다. 2015년부터는 전통사경의 기획, 전시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 2016년 1월, 한국미술관기획초대전으로 '21세기 한국사경 정예작가 9인 초대개인전'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2018년에는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외길 김경호 사경전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展'을 개최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서예계 세계 최고 권위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에 초대를 받고 사경 개인전과 초대개인전을 여러 차례 가진 국내 대표급 사경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창립되어 13회 회원전을 가진 한국사경연구회의 정예회원, 특별회원이고 외길 김경호 원장으로부터 전통사경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받은 직계 제자들로 이 시대 최고 수준의 사경예술가들이기도 하다.

박재완 기자

불교음악아카데미
9월 10일 개강, 수강생 모집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총괄대표 강형진)가 9월 10일 개강에 맞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찬불가 힐링스쿨과정과 ▲찬불가 지도사 과정이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찬불가지도사2급 과정(정규과정 30강 이수, 월요일 4:30)과 ▷찬불가지도사1급 과정(정규과정 30강 이수, 월요일 4:30)이다.

찬불가힐링스쿨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이 주어지고, 찬불가 지도사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과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이 발급된다.

합창단 경력 5년 이상이거나 음악경력이 있으면 노래실기, 서류, 면접심사로 오디션 통과시 '찬불가지도사2급' 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다.

접수는 동국대 평생교육원(http://bmclife.dongguuk.edu 02-2260-3728)이며, 문의는 아카사엔터테인먼트 사무국(02-415-2599)이다.

박재완 기자



불교 죽음관·근대 종단 성립 연구 '눈길'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에서 11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으며, 중앙승가대에서는 1명,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1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한역 불전으로 살핀 불교 죽음관

도현 스님(중앙승가대 역경학 전공)은 '불교에서의 죽음(死有)에 대한 연구-시대별 한역 불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현 스님은 4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전에서 죽음 관련 어원과 명칭, 삼계, 12연기, 열반을 중심으로 당시 사유 관련 내용 및 인식을 고찰했다.

스님은 "초기불전에는 직접적으로 '사유'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계·삼유·연기·열반 등을 통해 죽음 관련 의미와 명칭, 과정, 현상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비바사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부파불전에서는 초기불전과 달리 '사유'의 명칭과 그 과정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스님의 분석이다. 도현 스님은 "부파불전에서는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설하면서 사유와 본유·중유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초기불전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유관(死有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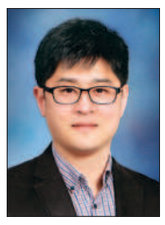
〈정법념처경〉, 〈대보적경〉, 〈중론〉 등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전은 초기·부파불전에 비해 사유와 열반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더욱 명확하다. 스님은 "대승불전에서는 초기불전과 부파불전의 사유 관련 인식을 전제로 사유와 중유의 과정, 열반을 통해 사유와 중유의 연관성, 사유와 열반에 관한 인식 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허 스님 '사교회통' 사상 분석

'탄허 택성의 사교회통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불교·유교·도교·기독교 등 4개 종교에 대한 회통사상을 펼친 탄허 스님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도현 스님


문광 스님


김성연


이선용

출가 전 유가와 도가를 섭렵하고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허 스님은 3년간 묵언참선 수행을 하고 7년 간 교학을 공부했다. 불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부되지 않았던 노장학을 자득했고 한문본 〈성경〉을 독파해 기독교에 대해서도 선적 안목으로 해석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사상의 핵심을 선과 화엄의 완전한 융회로 보았으며, 그의 사교회통의 원리 역시 선사상과 화엄사상을 함께 원융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이 선(禪)에서는 '심성(心性)'과 '성(性)자리'를 종지로 삼았으며 화엄에서는 '성기(性起)'와 '무애(無碍)'를 회통의 중심원리로 삼았음을 논증하며 "탄허의 사교회통사상은 한국불교의 정체성 담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통불교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되살아났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종단 형성 어떻게

김성연 박사(동국대 사학과)는 '일제하 불교 종단 형성 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연 박사는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종단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불교가 종교로서 근대화하기 위해 지향한 조직이 종단이었음을 주목하고 특히 선종의 전통성을 강조하며 선종 종단 설립에 매진했다. 일제강점기 불교 중앙기구의 발전 양상을 보면, 점차 조선 불교를 총괄하는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다. 연합제규, 재단법인 기부행위정관, 종헌 등은 중앙 행정 및 재정 확보에 있어 중앙기구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해 나간 규정들이었다. 특히 종헌을 바탕으로 삼권 분립의 중앙 행정기관을 정비한 것은 종단 성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종단은 본산 주지 임명권이나 재산을 처리하는 재정권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여서 운영상 한계는 노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연 박사는 "1929년의 종헌, 1941년의 조계종이 있었기에 해방 후 불교 재건 노력과 종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비구-대처 대립을 넘어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1941년 조계종 총본사가 세워진 이후 안정된 독립 재정구조가 정착되면서 종단체제의 재정기반이 마련됐던 점은 이후 불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려~조선 불교조각 복장 특성은

이선용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는 '한국 불교복장의 구성과 특성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선용 박사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조각의 복장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복장의 전형을 마련한 고려시대 이전 복장의 시원 형식을 추정하고 중국과 일본의 복장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복장의 형성과 전개에 대하여 살폈다.

또한 〈조상경〉을 토대로 물목의 전개와 흐름, 불화로 확산된 불교복장의 요소, 오방으로 규범화된 사상을 통해 한국 불교복장의 특징을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초기 불교복장은 사리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미 중국, 일본과 다른 공간·의식적 규범을 마련했으며, 이를 복장으로 정의했다. 밀교가 결합된 사상은 구체적인 물목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불교복장을 형성·전개했다.

또한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복장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불화에 접목시켜 물목과 의식에 기반을 둔 〈조상경〉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했다.

이선용 박사는 "복장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주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 "한국의 불교복장은 사상과 물목, 그리고 의식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한국불교와 미술의 역사·사상적 산물이자 시대·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미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으며 다른' 中日불교 전쟁 인식·태도

조문홍 中사회과학원 서기
국제불교학술교류회서 주장

중일전쟁 당시 양국 불교계
전쟁 참여 독려·지원 및 봉사
"종교, 선량한 역량에 노력해야"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 문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불교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937년 7월 7일의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1945년 9월 2일의 일본 항복까지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인 중일 전쟁에서 중국과 일본 불교의 전쟁 태도를 비교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문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당위서기는 8월 24일 연세대 문화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불교학술교류회에서 '항일전쟁 기간 중 중일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태도 비교'를 발표했다.

조 서기는 형식적으로는 전쟁 당시 양국 불교의 태도가 매우 유사하나 내용은 상이함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 당시 중국과 일본 불교는 모두 전쟁을 지지했다. 실제 일본 조동종의 학자는 "선(善)을 목적으로 한 전쟁은 선한 것"이라고 했고, 사변이 터진 후에는 중국 불교계도 "중국의 항전은 전쟁을 소멸시키고 멈추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대해 조 서기는 "중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계는 모두 전쟁에 봉사하도록 승려를 격려하고 동원했다"면서 "양국 승려들은 모두 군대에 봉사하고 국내외 홍보와 정보활동에 참여했으며, 직접 입대해 투쟁하기도 했다. 전쟁터에서 중국과 일본의 스님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서기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중국불교계는 일본 승려들을 동문 형제로 보고 성명을 보내 전쟁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승려들은 전쟁을 홍보하고 가사를 입은 채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는 오로지 정의로움과 결합해야 종교의 자비·박애·평화 등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 선량한 역량을 축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근현대불교의 사상과 의례'를 주제로 열린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불교학자 13명이 참여했으며, 선(禪)부터 불교음악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참여 학자들은 매년 교류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내년에는 '불교문화교류'를 주제로 10월 경 학술교류회를 중국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 파키스탄 간다라 유산 보존 나선다

문화재청, '혜초 서역 기행 알리기' 연계… 보존 장비 지원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 간다라 유산 보존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주파키스탄 대사관(대사 곽성규)의 '혜초 스님의 서역 기행 알리기' 사업과 연계해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헌유산부(장관 샤프카트 마흐무드)와 간다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파키스탄은 고대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인더스 강을 끼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중동, 인도 대륙과 접하고 있다.

현재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있으나 과거에는 간다라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와 융합하여 간다라 불교 미술이 처음 발생했으며, 당시 불교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라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에는 혜초가 파키스탄의 치트랄과 스왓 지역 등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만큼 한국의 불교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문화재청은 '혜초 스님의 서역 기행 알리기' 프로젝트와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해 파키스탄 내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고대 문화교류 역사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올해 5월, 보존과학 전문가를 파키스탄 교육역사문헌유산부에 파견해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우기에 수장고의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유물에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파키스탄의 수장고 보존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한 장비 지원과 유물관리 교육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 분야의 보존관리 기술과 체계를 바탕으로 찬란한 간다라 문화의 유물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는 보존·보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동상·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박재완의 PhotoEssay



하루가 간다

오늘 하루도 지나간다. 길겠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신을 벗고, 몸은 고단하게 내려앉는다. 끼니마다 수저를 들고, 어제 한 근심 다시 펴고, 풍경(風磬)소리 몇 번, 바람소리 몇 번에 하루가 또 간다. 이루지 못한 것들과 그리운 것들이 두 눈을 감게 하고, 반야심경, 화엄경, 금강경도 어쩌지 못한 하루가 또 간다. 한 줄 독경보다 짧은 하루가 또 지나간다. 난리 같았던 이 여름도 다 되어간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⑧ 물은 얼마나 마셔야 좋을까?

물, 적당히 마셔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8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물 섭취량에 대하여 동서의학의 견해는 어떨까?

서양의학에서는 하루 8잔의 물을 권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연구팀이 물 섭취량과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과거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하루 8잔의 물이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거나 주장한 논문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양의 물이 건강에 좋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이 젊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장기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 8잔의 물은 매일 마시는 차, 커피, 청량음료에 포함된 수분을 빠뜨리고 계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물 중독증, 염분 부족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물은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마시라고 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적게 마셔야 한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효소가 묽어져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 위액과 소화 효소가 묽어져서 소화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의 주식인 쌀은 서양의 주식인 밀에 비해 수분 함유량이 많다. 게다가 거의 매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를 먹기에 이미 많은 물을 섭취하고 있으므로 서양 사람들만큼 별도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 물은 적당히 마시면 된다. 마시는 양은 기후 상태에 따라 다르고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활동량에 따라 다르다. 덥고 습한 날씨나 작업, 운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라든가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 열이 나는 병을 앓고 있을 때, 구토를 하거나 설사할 때는 많이 마셔야 한다. 평소에는 갈증이 생기지 않을 만큼 마시면 된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지,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다. 다만 노인의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마실 필요가 있다.

만약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어 수분 배출량이 적은 사람이 물이나 차,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수분이 쌓여 습기나 담이 많이 생기게 되어 기와 혈의 유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각종 병증이 유발된다. 물론 운동이나 목욕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별 탈이 없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볼까?

중국 송나라 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양생법(養生法)에도 뛰어났던 소동파(蘇東坡)의 얘기를 참고해 보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물 마시는 것을 절제하라고 했다. '비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물 마시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으로서 강남에서 만난 어떤 노인으로부터 듣고 깨우친 것이라고 한다. 노인은 70대였지만 얼굴색이 붉고 윤기가 있으며 용모가 매우 뛰어나 마치 40-50세 정도로 보였다. 그래서 소동파가 그 비결을 묻자 노인이 답하기를 "조금도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평시에 마시는 물이 일반인에 비하여 반 정도일 뿐입니다"고 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된다. 적당히 마셔야 한다.

물, 과한 섭취 오히려 해 될 수도
체질 · 상태 따라 개인차 고려해야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노화를 억제시킨 까닭은?

첫째, 비장(脾臟)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장은 습기를 싫어하는데, 만약 많이 마셔서 습기가 많아지면 비장의 기가 약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장(胃腸)은 6부에 속하지만 비장은 5장의 하나로서 소화 흡수 기능을 총괄하기에 후천의 근본으로 중시된다. 우리 몸에 근본이 둘 있으니 선천의 근본인 신장과 후천의 근본인 비장이다. 선천이든 후천이든 근본이 무너지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노인이 되면서 신장의 정기가 부족해지는데, 만약 비장마저 허약해지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건강, 장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은 십이지장과 소화 효소의 역할에 해당되므로 온전해야 백병이 생겨나지 않는다. 반면 비장의 짝이 되는 위장은 건조한 것을 싫어하기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좋지 않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몸에 탈이 생기기 때문이다.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각종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바로 '수독(水毒)'이다. 몸에 장애를 유발하는 '삼독(三毒)'이 '수(水)', '습(濕)', '담(痰)'이다. 수는 물이고, 습은 습기이고, 담은 물이 쌓이고 열을 받아 끈적끈적해져 가래와 비슷한 형태로 된 것이다. 습과 담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담은 성인병의 주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독이 되는 것이다.

물을 많이 마셔야 좋은 경우도 있을까?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신우신염 등의 비뇨기계 염증질환이나 요로결석이 있으면 평소보다 많이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소변 양이 많아지게 해서 염증 성분이나 결석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뇨기에 결석을 갖고 있거나 방광염, 전립선염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늦봄부터 여름철에 심하고, 가을이 깊어지면 덜해지는 경향이 있다. 늦봄부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소변 양이 줄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이 비뇨기에 염증이나 결석이 잘 생기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물은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된다. 적당히 마셔야 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지구, 내 몸같이

내 몸은 지구와 같고, 내 몸속의 생명들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지구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대행선사 법어



만물만생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